

함께하는 FTA

July 2014 vol. 26



3주년 맞은 한·EU FTA의 성과와 의미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노하우

농업의 경쟁력을 찾다:
애플수박 농장 박인규 대표

넥타이 끄시는 우리아빠, 고맙습니다!

우리 아빠 여름 양복은 쿨맵시.
넥타이를 풀고 반팔셔츠만 입어도
2도 이상 체감온도가 내려간대요.
에너지를 아끼면서도 시원하게 지내는 센스-
어때요? 우리 아빠, 칭찬 받을만 하죠?

여름철 전력 피크시간

14:00 - 17:00



여름날, 고맙습니다!

칭찬릴레이 이벤트

무더운 여름, 가족, 친구 직장동료에게
힘이 되는 칭찬 한마디를 전달하는 건 어때까요?
올여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칭찬릴레이를 시작합니다.
www.powersave.or.kr

가정



- 안보는 TV 끄기
- 청소기 사용 자제
- 에어컨 사용 자제

사무실



- 쿨맵시 입기
- 점심시간 컴퓨터 끄기
- 선풍기 사용하기
- 문열고 냉방 자제
- 적정온도 냉방
- 전등 끄기

상점



- 26°C
- 문열고 냉방 자제
- 적정온도 냉방
- 전등 끄기



김미경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활용전략실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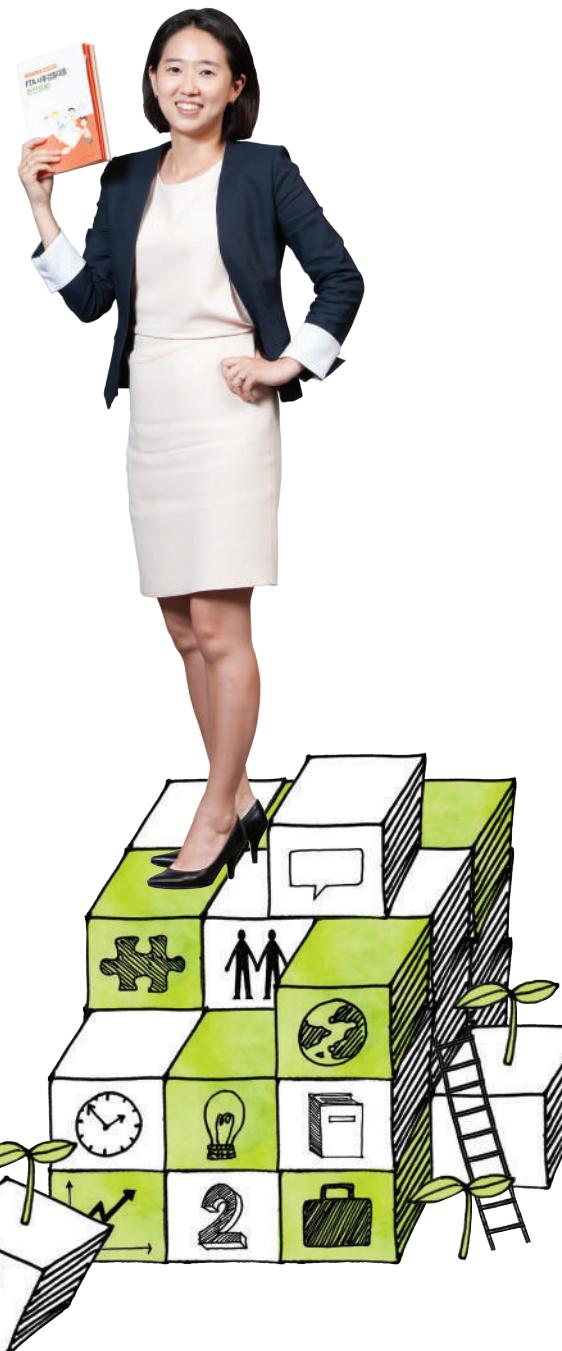
FTA 활용, '만능 일꾼 김 과장' 통하면 다 되네~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함께하는 FTA'와 인연이 깊다.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를 전후해 국내기업의 FTA 활용 촉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2월 21일 'FTA무역종합지원센터'가 개소했고, 6월 1일 '함께하는 FTA'가 창간됐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민간 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모여 국내 기업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는 FTA 콘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지원 기관을 전전할 필요 없이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 안내를 받아 가장 알맞은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된다.

국내 FTA 활용에 관한 한 모든 정보가 모이고 다양한 교육 및 세미나가 열리다 보니 '함께하는 FTA' 초창기에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 신세를 많이 졌다. 마치 FTA에 대해 잘 모르던 기업들이 센터의 전문가들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FTA에 대해 알아 나간 것처럼 취재진도 그렇게 FTA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쌓을 수 있었다.

2008년 한국무역협회에 입사한 이후 국제통상팀, 기획실, 대구경북지부를 거쳐 2012년 10월부터 FTA활용전략실의 실무를 맡고 있는 김미경 과장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함께하는 FTA'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가 속한 FTA활용전략실은 센터 전체의 운영 및 타 부서(FTA현장지원실, FTA사후검증실, FTA제도개선실)와의 조율, 1380콜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미경 과장의 역할 또한 기획·홍보·운영 전반에 걸쳐 있다. FTA 활용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의 기획·섭외·진행부터, 성공사례를 발굴해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자를 찾아다니며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의 협력 사업을 기획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FTA와 관련한 정보나 자료가 필요할 경우 김 과장을 통하면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다.

만능 일꾼 김 과장이 지금까지 FTA 활용 현장의 최전선에서 지켜본 한국의 FTA는 희망적이다. "FTA 특혜관세를 얻기 위해서는 원산지관리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이를 지원하는 조직이 생기고 전 구성원이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일을 하고, '어떻게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에 남다른 의미가 느껴져요. 다른 나라는 이런 지원이 잘 없는데 한국에서는 잘 이뤄지고 있구요. FTA 콜센터 1380에도 연 1만 건 이상의 상담이 이뤄질 정도로 우리 기업이 센터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수출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과장과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덕에 어떤 FTA도 큰 어려움 없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것이란 희망적인 기운이 느껴진다.❶



contents

July 2014 vol. 26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4년 7월 10일(통권 26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044-203-4131)

발행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COVER STORY

한·EU FTA가 발효 3년을 맞았습니다.
2014년 7월 1일로 4년차를 맞은
한·EU FTA는 '3년 관세철프' 품목의
관세가 사라지며 '이행 심화 단계'에
들어섰고, 한국과 EU는 하나의 시장에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표지일러스트 서용남



FTA People

01

김미경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활용전략실 과장

Issue Focus

04

'FTA콜센터 1380'
개통 1주년 성과

06

가서명된 한·캐나다 FTA
주요 내용

08

지상중계: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세미나

10

FTA사후검증대응 완전정복!

FTA Cartoon

11

한·EU FTA가
발효 3주년을 맞았습니다!
안종만

Leader's View

20

FTA로 제기되는
기업의 새로운 과제들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 회장

COVER STORY

12

한·EU FTA 3년차 성과 분석

14

한·EU FTA 3주년,
이렇게 보았다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16

유럽에서 맞는
한·EU FTA 3주년
정종태 KOTRA 유럽지역본부장

18

한·EU FTA 3주년: 영국
장명철 KOTRA 런던무역관 과장

Power Interview

28

자유무역의 역사:
⑥유럽연합(EU)

이경희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FTA Lounge

22

박인규
애플수박농장 대표

24

TG삼보컴퓨터 'SE-8001'
양충모 객원기자

26

떡: 변신 또 변신하며
세계로 뻗어간다
양충모 객원기자

38

김성녀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Culture Prism

36

귀 기울여 듣다
신현림 시인

FTA Study

40

박관원
배다리막걸리 회장

FTA News

42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등

INDEX

44

FTA 용어 & 독자의 소리
⑤작성대장, 서명카드 등
박종광 Ciel HS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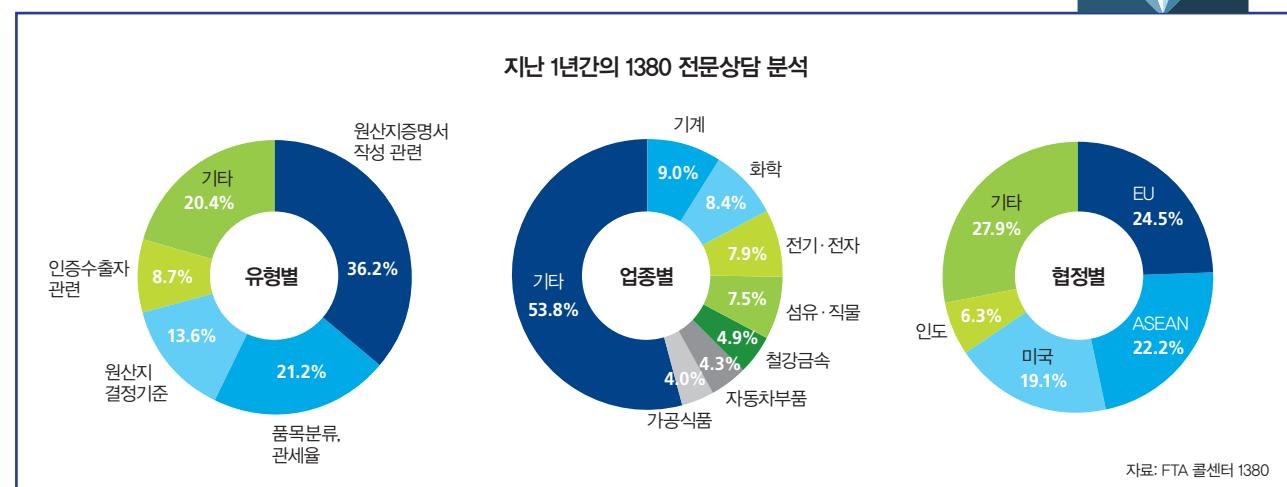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콜센터 1380' 개통 1주년 성과

수출기업들의 뜰뜰한 FTA 활용 도우미로 정착

지난 6월 24일 'FTA 콜센터 1380'이 개통 후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 관련 문의는 총 1만922건에 이르며, 이들 중 전문 관세사가 30분 이상 상담하고 애로해소를 지원한 경우는 8,040건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FTA 콜센터 1380(이하 1380)'은 FTA 활용과 관련해 애로요인별, 업종별, 협정별 전문 관세사를 배치해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오고 있다. 전화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전문 관세사들이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해주거나 심화 지원 프로그램인 'OK FTA 현장 컨설팅'으로 연결해 주고 있다. 지난 1년 간 1,183개사가 1380을 통해 현장방문 지원을 받았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1380을 통해 FTA 관련 다양한 애로를 해소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문자상표부착품방식(OEM) 수출을 하다가 FTA를 활용해 자사 브

랜드를 달고 직접 수출에 성공한 A사, 신제품을 개발해 경쟁국 제품을 따돌리고 수출에 성공한 K사, 원산지관리 초보기업에서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D사, 정확한 자료준비로 사후검증 대응에 성공한 T사 등 많은 중소기업들이 1380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FTA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지난 1년간 이뤄진 전문상담을 애로유형별로 살펴보면, 품목마스트, 자재명세서 작성 등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내용(36.2%, 2,907건)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제품의 품목분류·관세율(21.2%, 1,702건), 원산지결정기준(13.6%, 1,095건), 인증수출자 관련 내용(8.7%, 698건), 기타(20.4%, 1,638건) 순이다.

업종별로는 기계(9.0%, 727건), 화학(8.4%,

675건), 전기·전자(7.9%, 637건), 섬유·직물(7.5%, 606건), 철강금속(4.9%, 395건), 자동차부품(4.3%, 348건), 가공식품(4.0%, 324건), 기타(53.8%, 4,382건) 순으로 상담이 많았다. 협정별로는 EU(24.5%, 1,972건), ASEAN(22.2%, 1,783건) 관련 문의가 많았고, 미국(19.1%, 1,533건), 인도(6.3%, 503건)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1380에서 파악된 내용을 업종별 FTA 교육, 설명회 개최 시 반영하고, 상담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등 1380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1380을 통해 제기된 애로 사항 중 제도개선 또는 협정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수립이나 이행협의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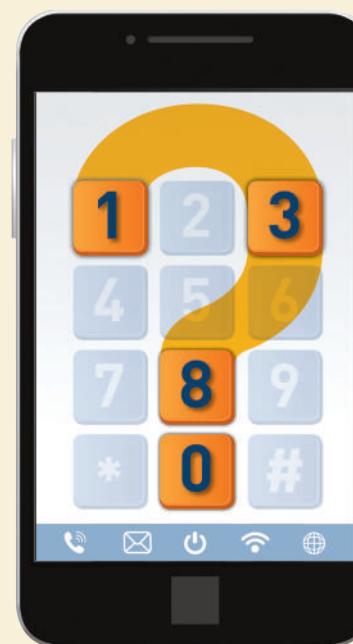


'FTA 콜센터 1380' 상담 사례 1380 통하니, FTA 다 통하네~

사례 1.

FTA를 활용, OEM 수출에서
자사 브랜드를 달고 직접 수출 성공

경기도에 위치한 A사는 진공포장기와 포장필름을 제조하는 업체로, 주로 OEM 방식으로 수출을 진행했었다. 자사 브랜드를 개발해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FTA를 활용하면 가격경쟁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FTA 콜센터 1380'을 알게 되어 도움을 요청했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소속 전문가들과의 수차례 상담 끝에 EU 수출에 필수적인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 독일 수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A사는 자사 브랜드로 인한 신뢰도 및 FTA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독일로 수출을 개시했다.



사례 2.

기업의 신성장동력이 된 제품,
FTA 활용으로 수출 성공

과거 무선전화 부품을 생산하던 K전자는 태양광 제품을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한 이래, 각고의 노력 끝에 휴대용 태양광 랜턴을 개발하고 태국으로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당초 대만과 중국산 수입을 고려하던 태국 바이어는, 한국 제품을 수입하면 35%에 달하는 관세 절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K사의 제품을 선택하게 됐다. 그러나 K사는 샘플 선적을 며칠 앞두고서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사실만으로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1380으로 문의했다.

한·ASEAN FTA는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일이 촉박했다. 이에 담당 관세사는 K사를 직접 방문해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원산지기준 확인, 원산지 판정 등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류 준비 및 작성을 지원했다. K전자는 샘플 선적 후 3영업일 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성공해 태국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했고, 이에 따라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사례 3.

정확한 가이드로 사후검증 대응 성공

생활용품을 제작해 미국에 수출하는 T사는 바이어로부터 미국 세관당국(CBP)의 원산지 검증이 시작되었으니 지원을 요청한다는 메일과 미 세관의 정보요청서(F-28)를 전달받았다. T사는 사후검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일주일간의 탐색 끝에 FTA 콜센터로 연락했으나 그 때는 이미 소명자료 기한 제출 기한 30일중 20일을 소모한 상태였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 사후검증 대응 전담 관세사는 한·미 FTA 사후검증의 개념과 절차를 안내하고 바이어와의 협력을 통해 소명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받을 것을 제안했다. 관세사는 T사를 직접 방문해 원산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원산지 판정을 한 결과, T사의 수출품이 역내산으로서 충분한 검증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 미국 세관당국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소명자료 작성 사례를 제시하고, 완성된 T사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부족한 자료의 보완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T사는 기한 내에 자료를 미 세관에 제출했고, 미 세관은 T사 제품을 역내산으로 판단하고 검증을 종료했다.



가서명된 한·캐나다 FTA 주요 내용

승용차·가전 등 일본보다 유리한 위치 선점… 한·미 FTA와 유사한 서비스·투자 규범 채택

6월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는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Ian Burney)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한·캐나다 FTA 가서명이 이뤄졌다. 양국은 하반기 중 한·캐나다 FTA 협정문의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Ian Burney)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는 6월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캐나다 FTA 협정 가서명' 행사를 가졌다.

상품 양허

선점했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6%)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해 높은 수준의 상품자유화를 달성했다. 캐나다측은 품목수 93.2%, 수입액 95.9%에 대해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수 97.5%, 수입액 98.7%에 대해 10년 내 관세철폐키로 했다. 한국측은 품목수 86.1%, 수입액 92.3%에 대해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수 97.5%, 수입액 98.4%에 대해 10년 내 관세철폐키로 했다.

캐나다 시장의 경우 한국의 대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2013년 수출 22.3억 달러, 수출 비중 42.8%)의 관세(6.1%)를 3년(24개 월) 철폐키로 해 캐나다 내 수입시장에서 한

국의 경쟁국인 일본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한·EU FTA(14.5%)에 비해 보수적으로 합의했다.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하고,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했다. 쇠고기(관세율 40%, 72%)는 15년 철폐, 돼지고기(22.5%, 25%)는 5년 또는 13년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설정했다. 유연탄, 펄프, 원목, 동광 등 한국의 대캐나다 수입액의 67.6%(2009~2011년 평균 기준) 내외는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원산지 기준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의 생산 공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했다. 육류(닭고기 제외)에 대해 도축기준을 인정한·미 FTA와 동일)했고, 완성차의 경우 미국산 즉시 또는 3년 철폐 등으로 합의해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섬유분야(평균관세율 5.9%, 최대 18%)는 대부분 3년 내 철폐로 한·미 FTA에 합의했다. 섬유·의류의 경우 한·미 FTA(원사 기준)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세번변경기준 및 염색·날염공정 인정 등)으로 합의했다. 전자기기 및 기계 등은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도입하면서 가공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품에 따라 선택적 부가가치(역내산 45%) 기준을 사용하게 된다. 한편 개성공단과 관련해 한·미 FTA, 한·EU FTA와 유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기준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단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외가공지역 상품의 원산지 상품 인정 전 충족 기준(한반도 비행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의 영향, 환경 및 노동 기준 및 관행 등)은 미도입됐다.

무역구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양자세이프가드를 도입했다. 이와 별도로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겉보리·쌀보리, 감자분, 팥 등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했다. 반덤핑·상계 관세에 대해서는 각국 국내법에 따른 최소부과(lesser duty) 규정 도입, 조사 개시 전 사전 통보 및 협의 의무, 약속(undertakings)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비스·투자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투자 규범을 채택했다. 또한 한·미 FTA와 유사한 수

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규정했다. 시장접근 측면에 있어서 캐나다측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캐나다·EU FTA 등과 같은 최대 수준의 개방을 보장하는 한편, NAFTA 발효 시점(1994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FTA의 최고 대우를 우리측에 자동 부여하고,

우리측은 한·캐나다 FTA 발효 시점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캐나다측에 자동 부여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한·미 FTA,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공공정책 목 적상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 자율권을 충분히 확보했다.

정부조달

기본적으로 WTO의 정부조달협정(GPA) 상 양국의 권리·의무를 반영하되, 상호간 GPA 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앙정부 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1억 원, 캐나다측은 10만 캐나다달러(7만 SDR) 이상의 상품·サービ

스 조달 계약과, 500만 SDR 이상의 건설 서비스 조달 계약 시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우리의 학교급식과 중소기업 관련 조달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규범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에서 부여하는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기초로 합의해,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이해증진을 위한 연락처 지정 및 SPS 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또한 WTO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에서 부여하는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반영하고, 양자간 분야별 공동협력 추진(자동차, 의료기기, 의약품, 통신기기, 전기기기, 건자재 등) 및 표준관련 조치 위원회 개최(연 1회 이상) 등에 합의했다.

한편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의 수준을 상회하는 조항 등을 통해 지재권을 꼭넓게 보호하는 한편, 지재권 위반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소리상표 및 유명상표의 보호를 규정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 등 저작권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지리적 표시와 관련해, 우리측은 캐나다측 관심품목 2개(캐나다 위스키, 캐나다 라이 위스키), 캐나다측은 우리측 관심품목 4개(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수삼, 이천쌀)를 지리적 표시로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 비관세

안전기준의 경우, 상대국 원산지 차량이 자국 기준에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을 충족한 경우 각국 국가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내국세 및 배출가스 기준과 관련해서는 FTA 체결국을 포함한 제3국에 부여한 최혜국 대우를 상호간 부여키로 했다(한·EU FTA와 동일). 자동차(부품 제외) 관련 분쟁은 일반 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하되, 절차 진행을 보다 신속화하기로 했다.❶

한·캐나다 FTA 전체 상품 양허수준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 양허유형 | 우리 양허 | | | | 캐나다 양허 | | | |
|--------|--------|------|---------------|------|--------|------|---------------|------|
| | 품목수 | 비중 | 수입액 (대캐나다) | 비중 | 품목수 | 비중 | 수입액 (대캐나다) | 비중 |
| 10년 내 | 11,604 | 97.5 | 4,752 | 98.4 | 8,142 | 97.5 | 6,447 | 98.7 |
| 즉시 | 9,749 | 81.9 | 4,205 | 87.0 | 6,380 | 76.4 | 4,188 | 64.1 |
| 무관세 | 1,960 | 16.5 | 3,266 | 67.6 | 5,703 | 68.3 | 3,866 | 59.2 |
| 유관세 | 7,789 | 65.5 | 938 | 19.4 | 677 | 8.1 | 323 | 4.9 |
| 3년 | 502 | 4.2 | 255 | 5.3 | 1,401 | 16.8 | 2,072 | 31.7 |
| 5년 | 722 | 6.1 | 184 | 3.8 | 359 | 4.3 | 186 | 2.9 |
| 6년 | 2 | 0.0 | 0 | 0.0 | – | – | – | – |
| 7년 | 12 | 0.1 | 76 | 1.6 | – | – | – | – |
| 10년 | 612 | 5.1 | 29 | 0.6 | 2 | 0.0 | 0 | 0.0 |
| 세번분리 | 5 | 0.0 | 4 | 0.1 | – | – | – | – |
| 10년 초과 | 77 | 0.6 | 52 | 1.1 | 25 | 0.3 | 84 | 1.3 |
| 세번분리 | 5 | 0.0 | 4 | 0.1 | – | – | – | – |
| 계절관세 | 1 | 0.0 | 0 | 0.0 | – | – | – | – |
| 현행관세 | 2 | 0.0 | 0 | 0.0 | – | – | – | – |
| 양허제외 | 211 | 1.8 | 22 | 0.5 | 181 | 2.2 | 0 | 0.0 |
| 총합계 | 11,900 | 100 | 4,831 | 100 | 8,348 | 100 | 6,530 | 100 |

(품목수는 HS코드 2011년 기준, 수입액은 2009~2011년 평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지상중계-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세미나

“입증서류 최대한 친절하게 작성하라”

한국이 EU, 미국 등 주요 시장과 FTA를 맺은 지 2~3년을 넘기고 있는 지금, FTA와 관련해 기업 실무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후검증이다. 지난 6월 18일 무역센터에서 열린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세미나'에는 300명이 넘는 기업 실무자들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미국의 FTA 원산지 사후검증의 개요 및 절차

최경식 변호사(Bulestone Law International)

이번 세미나에는 특별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역 전문 변호사, 관세사를 초청해 미국 현지의 분위기를 전달해 기업 실무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첫 번째 순서를 맡은 최경식 변호사는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미국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한 때 CBP가 걷는 세금이 미국 정부기관 내에서 1위였으나 지금은 IRS(Internal Revenue Service: 한국의 국세청

에 해당) 다음으로 밀리다 보니, 세수 확보에 약간의 경쟁심을 갖고 있는 편이다. 특히 미국 내 341개소에 있는 4만~5만 명 규모의 수입 전문가(Import Specialist)들이 수입 통관 및 사후검증 등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엄청난 통관수량 때문에 인력은 늘 부족한 편이다. 최대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몇몇 주요 산업에만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가장 철저하게 해야 할 산업 분야는 ‘섬유·의류’다. 그는 “한·미 FTA 체결 전 미국 내에서 자동차와 의류 산업에서 가장 반대가 켰다. 그러나 GM과 크라이슬러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지만, 의류 쪽에선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얘기했다.

최 변호사는 특히 PO(Purchase Order: 주문서)와 송장(invoic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PO와 인보이스는 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거래 입증의 기본 서류다. PO에는 인보이스 넘버가, 인보이스에는 PO 넘버가 들어가 상호 매칭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그가 제시한 하나의 팁이다.

2. 미국의 FTA 원산지 사후검증

사례 및 동향

박병렬 관세사(B&H Customs Services, Inc.)

미국에서 관세사로 30년 넘게 일 해온 박병렬



- 1 지난 6월 18일 열린 세미나에는 기업 실무자 300명이 참여해 사후검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시켰다.
- 2 미국에서 30년 넘게 활동한 박병렬 관세사
- 3 미국 통상 전문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경식 변호사

관세사는 한국의 무역 실무자가 알아두면 좋을 미국 관세법과 관련 법규에 대해 설명했다. 박 관세사는 “내가 볼 때 한국은 한·미 FTA에 대해 홍보와 교육이 잘 되어 있고, 기업들도 변호사·관세사를 통해 많이 상담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홍보·교육 시스템도 없고 제대로 된 상담·교육 전문가가 없어 미국의 수출기업들은 한국처럼 그러질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수입자는 불행하고, 미국 쪽 수입자는 행운이다. 따라서 한국 수입자는 관련 서류를 잘 챙길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박 관세사 또한 송장(인보이스)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세관이 가장 신뢰하는 서류가 인보이스다. 단순히 제품명만 쓸 것이 아니라 품명, 규격(사이즈, 무게) 등 자세하게 쓰는 것이 좋다. 특히 단품이 아닌 복수의 물품이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생산자별로 묶어서 알아보기 쉽게 써야 한다. 단순히 1번부터 200번까지 나열하면 세관 직원이 이해를 못하고, 세관 직원이 이해 못하면 FTA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3. 한국 수출자의 효율적 FTA 사후검증 대응 전략

강동구 관세사(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사후검증지원실)

세 번째 강연을 맡은 강동구 관세사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내 FTA 사후검증 지원센터에

서 가장 오래 실무를 맡은 전문가다. 그에 따르면 FTA 사후검증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강 관세사는 “사후검증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후검증 입증 서류를 보낼 때 미국 세관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볼 것을 강조했다. “미국 세관 직원이 서류를 봤을 때 ‘이걸 왜 보냈지?’라는 의문이 들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회사 내 자료를 그대로 보낼 것이 아니라 미국 세관 직원이 알아보기 쉽게 한 번 더 가공해서 보내는 것이 좋다. 특히 한글로 된 서류는 모두 영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대개 미국의 수입자가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뒤 다시 한국의 수출자에게 보내는 데 평균적으로

2주가 소요된다. 수출자가 입증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을 때는 기간 연장 신청을 반드시 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팁을 남겼다.

4. 관세청의 수입 검증과 한국 수입자의 대비 전략

이나애 사무관(관세청 원산지담당관실)

네 번째 강연을 맡은이나애 사무관은 FTA 수입 현황을 소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입액은 5,156억 달러인데, 이 중 FTA를 발효한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은 2,163억 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액은 697억 달러로 전체의 13.5%에 이른다. 이 사무관은 “올해는 FTA 활용 수입이 10%대 후반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한·중 FTA가 체결되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원산지검증 대상 선정 우선순위는 크게 세 가지로, ① 수입이 급증했거나 신규 수입물품인 경우 ② FTA 협정세율 혜택이 큰 물품 ③ 원산지기준 충족이 됐다가 안 됐다가를 반복하는 경우다. 그는 “사후검증으로 인한 불이익 시 책임소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역계약서에 구매사 유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국 수입자의 경우 해외 수출자의 소재 파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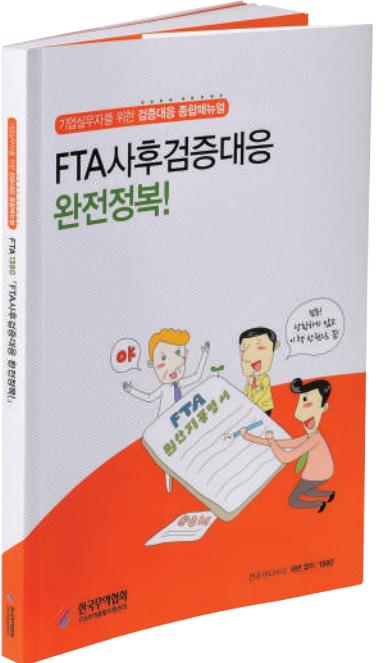
전문가가 말하는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전략 4계명

- ① 사후검증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없애라
- ② 거래상대 수입업체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의사소통하라
- ③ 검증 대응자료는 이미 기업 내부에 있다.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뿐이다.
- ④ 세관 당국에 제출하는 소명자료의 설득력을 높여라



FTA사후검증대응 완전정복!

사후검증,
당황하지 말고
이것 하나로 끝!



“
절차를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
기준의 작성된 서류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만들었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내의 'FTA 사후검증 지원센터'는 국내로 들어오는 FTA 사후검증 사례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 5월 15일 센터를 개소한 이래, 사후검증 문의를 받은 기업들이 어김없이 이곳을 찾기 때문이다. 'FTA사후검증대응 완전정복!'은
지난 1년간의 사례를 모은 검증대응 매뉴얼이다.

'FTA사후검증대응 완전정복!'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 기법이 사용됐다는 점이다. 'KITA 오토모티브'라는 가상의 회사를 설정하고, 이 회사가 사후검증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인공만 가상의 회사일 뿐 사례에 사용된 품목의 HS코드와 원산지기준, 그리고 사후검증 대응에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실제의 것들이다. 박찬익 과장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사후검증지원실)은 "절차를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 기준의 작성된 서류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만들었다"고 이유를 얘기했다.

FTA 사후검증 지원센터에는 많은 검증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지만, 막상 사례를 보여주려니 해당 기업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서 불가능했다. 그래서 사후검증 세미나 때마다 회사 이름과 제품명 등을 모두 가리고 보여주었는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난해한 모양이 되어 버리기 일쑤였다. 그래서 아예 가상의 회사를 만든 것이다. 가상의 회사 KITA오토모티브(KITA는 한국무역협회의 영문 이니셜)는 엔진오일필터를 만드는 회사로, 사례에 사용된 데이터는 모두 실제의 것이다. 박 과장은 "실제 오일필터를 만드는 회사라면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사후검증지원실 편집 | 193쪽 | 무료배포

한·EU FTA가 발효 3주년을 맞았습니다!

안종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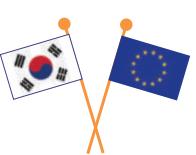
*EU의 전년 동기 대비 수입 변화율(자료: Eurostat, 2013년 7월~2014년 3월)



한·EU FTA 3년차 성과 분석

3년 관세철폐 품목 무관세화... ‘이행 심화 단계’ 진입

7월 1일로 한·EU FTA가 발효된 지 3년이 지나면서 4년차에 접어들었다. 발효 후 즉시 철폐된 품목에 이어 ‘3년 관세철폐’ 품목의 관세가 완전철폐되면서 한·EU FTA는 개방 수준이 더욱 높아졌다. 지난 3년 간의 한·EU FTA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이행 심화 단계’를 대비할 때다.



EU는 전 세계 GDP의 23.1% (16.7조 달리, 2013년 IMF 자료)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시장이자, 한국의 3위 교역상 대국이다. 수출상대국으로는 중국(26.1%, 이하 수출비중)·미국(11.1%)에 이은 3위(8.7%), 수입상대국으로는 중국(16.1%, 이하 수입비중)·일본(11.6%)에 이은 3위(10.1%)다.

한·EU FTA 발효 직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개방 수준(무관세 기준)은 한국측 81.7%, EU측 94.0%였으나, 올 7월 1일부터 3년 관세철폐 품목들이 추가로 개방되면서 개방 수준은 한국측 87.2%, EU측 96.9%로 더욱 높아졌다. 3년 관세철폐란 기준관세를 발효일로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되 4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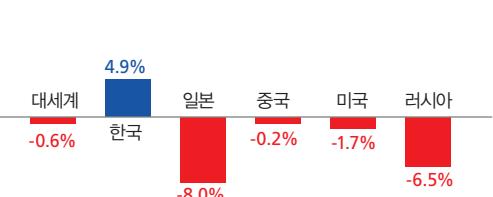
(2014년 7월 1일)부터 완전철폐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측 3년 관세철폐의 대표 품목은 1500cc 초과 승용차(8%, 이하 대표품목의 기준관세), 화장품(8%), 레몬(30%), 오렌지쥬스(54%) 등이다. EU측 3년 관세철폐 대표 품목은 1500cc 초과 승용차(10%), 타이어(2.4~4.5%), 샐러리(12.8%), 완두콩(8%) 등이다.

3년차 교역규모 10.3% 증가

한·EU FTA 3년차(2013년 7월~2014년 5월)의 EU와의 교역 규모는 2년차(2012년 7월~2013년 5월) 대비 10.3% 증가했다. 발효 1년차에 유럽 경제 위기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 2년차에 1.5%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유럽의 경기 회복과 더불어 교역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수출의 경우 1년차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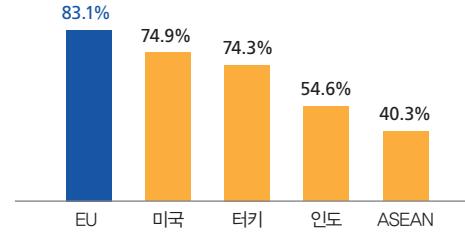
12

EU의 전년 동기 대비 수입 변화율



자료: Eurostat, 2013년 7월~2014년 3월

FTA별 수출활용률 비교



직전 연차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 발효 전 대비 크게 늘어

한·EU FTA 3년차에 EU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55.6억 달러로 발효 전(38.4억 달러)뿐만 아니라 1년차(43.8억 달러), 2년차(38.0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한국투자 추세는 금융위기, 재정위기 등에 따라 투자금액이 다소 변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은 화학공업, 비금속광물 분야를 중심으로, M&A형은 비금속광물, 금융·보험 업종 위주로 투자가 활발하다.

EU 수입시장에서 경쟁국과 비교해볼 때도 한국의 수출 증가는 의미가 크다. EU의 대세계 수입(-0.6%) 및 일본(-8.0%)·중국(-0.2%)·미국(-1.7%)·러시아(-6.5%) 등이 감소한 데 비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4.9% 늘었다(자료: Eurostat, 2013년 7월~2014년 3월).

수입의 경우 FTA 혜택품목의 수입이 14.5%, 비혜택품목의 수입이 6.8% 증가하며 전체 수입은 12.5% 증가했다. 한편 대EU 무역수지는 다소 증가 추세인데, 이에 대해서는 장기화된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 2011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원·유로 환율의 하락세(한·EU FTA 발효 시기 때보다 약 7.2% 하락), 기계·원유·석유제품의 수입처를 EU로 전환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원유의 경우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제(2011년 11월)로 인해 영국산 브랜트유로 구매를 전환했고, 나프타(석유제품) 수입은 인도(관세 5%)에서 EU(관세 0%)로 바뀌었다. 기계류의 경우도 한·EU FTA 관세혜택으로 인해 일본에서 EU로 수입선을 전환했다.

한편 한·EU FTA 발효 시부터 실시된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제 정착으로 수출활용률은 타 FTA보다 높은 편이나, 3년차 활용률(83.1%)은 소폭 감소했다. 3년차에도 대기업의 수출활용률이 중소·중견기업보다 여전히 높지만, 지난 3년 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 중이다.

한편 농수산물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3년차의 대EU 농수산물 교역량(38.9억 달리)은 수입선 전환 등의 효과로 2년차(33.3억 달리)에 비해 16.8% 증가했다. 교역규모는 발효 전(30.1억 달리)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대EU 농수산물 수출(4.0억 달리)은 2년차에 비해 2.5% 증가했으나, 전체 대EU 수출증가율(7.8%)보다는 낮은 편이다. 수산물 중에서는 김·미역 등 해조류와 오징어·문어 등의 연체류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10.5%)했고, 농산물 중에서는 과일류 및 채소류의 수출이 증가했다. 대EU 농수산물 수입(34.9억 달리)은 2년차에 비해 18.8% 증가했다. 2년차 대비 수입증가 주요 품목은 돼지고기, 밀, 와인, 초콜릿, 맥주, 소금 등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미 체결된 FTA를 최대한 활용해 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정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업종별로 특화된 FTA 활용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개별기업의 FTA 활용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맞춤형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성과 점검을 지속하고 FTA 허브 효과를 활용한 투자유치의 IR(Investor Relations)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한·EU FTA 3주년, 이렇게 보았다

무역수지만으로 FTA 효과 단언할 수 없어… 최종재 수출입보다 글로벌 공급망 살펴야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대EU 수출증가세는 둔화되었고, 연이은 유럽재정위기의 여파로 대EU 수출은 2011년 하반기부터는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15년 만에 1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2013년에는 적자폭이 73.7억 달러로 확대됐다. FTA 발효 이후 오히려 수출이 감소한 것은 실망스러운 결과지만, 한·EU 간 수출입 통계 이면에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1. 한국의 경쟁국들 모두 대EU 수출이 감소했다

한·EU FTA 발효 이후 주요국에 대한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유독 대EU 수출만이 감소하고 있다. 우선 FTA 발효 이후 점진적인 관세철폐에도 불구하고, 대EU 수출은 3년여 동안 10.4% 감소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10% 증가했고, 미국, 중국,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17~38%의 괄목할 만한 증가를 기록했다. 유럽 수출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미국,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는 주요국의 대EU 수출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통계청(Eurostat)의 수입 통계를 통해 역으로 살펴보면, 한·EU FTA 발효 3년 동안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의 국가들은 모두 대EU 수출감소를 기록했다. 매년 두 자리의 수출증가를 기록해 오던 중국의 대EU 수출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한국(-4.9%)보다 다소 큰 수출감소 (-5.6%)를 기록했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한·EU

FTA 발효 3년의 기간 동안 일본과 대만 양국은 13~22%에 달하는 대EU 수출감소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은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대EU 수출감소율이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커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한·중·일 3국의 공통점은 모두 제조업 강국이며 제조업 부문의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EU의 내수감소와 유로화 약세는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은 동아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선박 및 반도체 수출 감소에는 이유가 있다

선박 및 반도체 관련 제품의 경우 수출의 극심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선박 수출은 대EU 총수출의 28%(2011년)까지 차지했을 정도로 주요 수출 상품이었으나, FTA 발효 3년 동안 수출이 60% 이상 감소했으며, 무선전화기(휴대폰) 및 액정디바이스, 집적회로 등도 15~52%의 수출 감소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유럽시장의 불황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나타나는 분야(선박)이거나, 한국의 해외생산기지 이전이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분야(무선전화, 반도체)다.

한국은 대EU 수출에 있어서 중국·일본에 비해 선박, 반도체류에 대한 수출편중도가 심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유럽시장에서 전반적인 선박 수요가 급감할 경우 수출 감소 효과도 증폭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정제석유, 자동차, 기초화학 제품의 수출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분화된 제품군을 살펴볼 경우 비교적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관세철폐에 따라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품목에서 수출증가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3. 무역전환효과로 가격 싸진 EU산으로 수입이 대체됐다

무역수지 악화는 수출 감소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수입 증가에 더 큰 원인이 있다. 한·EU FTA 발표 3년의 기간 동안 EU로부터의 수입은 40%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총수입이 10.4%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 4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것이다. 품목

별 수입 증가를 살펴보면, 원유, 정제석유와 같은 중간재 성격의 제품군부터 기계류, 자동차, 가방 등 거의 전 품목군에 걸쳐서 수입 증가가 나타난다. 이 중 일부는 FTA 발효로 인한 무역전환 효과에 의한 것으로, 원유, 자동차, 기계류가 대표적이다. 한·EU FTA 발효 전까지 한국의 북해산 브렌트유 수입은 전무했으나, FTA 발효 이후 전체 원유 수입의 5%에 이를 정도로 높아졌으며, 대일본 기계류 수입이 유럽산으로 대체되면서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 폭은 감소하고 있다.

결론: 최종재 수출보다 기술협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은 FTA 발효 3년차에는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며, 향후 EU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EU가 일본, ASEAN 회원국과 FTA 협상을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FTA를 선점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관세철폐 효과는 장기적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다. 또한 향후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직적 무역 분야뿐만 아니라 부품·소재 분야까지 해외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FTA를 단순히 '수출확대'의 방편으로 보는 시각은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에서 팔리는 한국 자동차의 절반은 현지 또는 터키에서의 생산이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독일 자동차의 경우 부품이 모두 독일산일까? 동유럽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일 수도 있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 상에서 무역흐름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한 국가의 국경 간 최종재의 흐름만으로 무역통계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진국과의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책지원의 장기적 초점을 최종재의 수출 확대에서 기술협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FTA 네트워크를 글로벌 가치사슬 구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FTA로 인한 외부경제로부터의 자극을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❶

유럽에서 맞는 한·EU FTA 3주년

유럽, 기지개를 펴다!

글 정종태 KOTRA 유럽지역본부장

유럽이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는 징조가 곳곳에서 보인다. 유럽은 2012년~2013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4년에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물론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 중심국도 GDP가 완만하게 성장하며 유럽은 1.6%의 견고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민간소비 및 설비 투자도 작년 대비 각각 1.2%, 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14년부터는 유럽 경제가 기지개를 펴지 않을까 싶다.

유럽 경기 회복에 힘입어 한국의 대유럽 무역은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2013년은 FTA 수혜 품목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 속에 전체 수출액이 감소한 반면, 2014년 1~5월 대 EU 수출은 전년대비 14.9%나 증가했다. 특히 EU 내 제 2, 3대 수출국인 영국, 네덜란드로의 수출은 30% 이상 성장하는 등 2014년은 한·EU FTA가 본격적으로 빛을 보는 해가 아닌가 싶다.

최근 KOTRA(코트라)가 유럽 바이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기업의 유럽 활약은 계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에 응한 유럽 바이어 중 67.8%는 지난 3년간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답했으며, 71.7%는 한국의 국가이미지가 향상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68.3%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그 이유로 바이어의 33.9%가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이라 한 것을 보면 한·EU FTA가 국내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국내기업이 되살아나는 유럽 경기 및 FTA 효과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전시회 참여를 권하고 싶다. 유럽인들의 보수적인 성향을 감안하면 기업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내 중견·중소기업이 유럽 대기업의 구매담당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전시회를 통하여 다수의 바이어를 사전 접촉 없이 만나고, 자사제품을 맨투맨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아울러 유럽 전시회의 참가자 중 30~50%가 유럽 외 지역에서 참여하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은 유럽 전시회 참여를 통해 유럽 진출은 물론 기타 지역에까지 거래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❶



유럽에서 맞는 한·EU FTA 3주년: 영국

영국 총리가 한국 기업을 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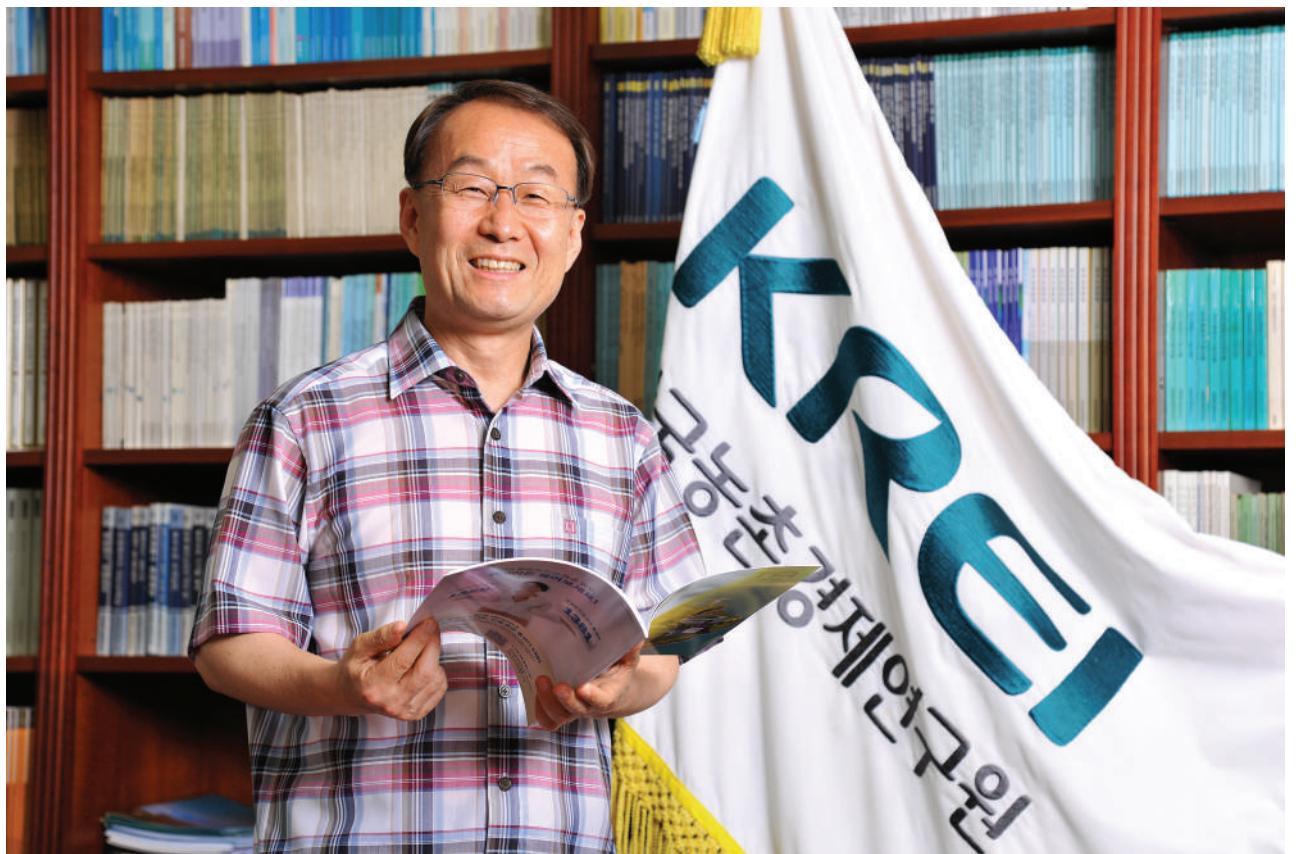
글 장명철 KOTRA 런던무역관 과장

월요일 아침, 영국인 패트릭(Patrick)씨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3 알람에 잠을 깐다. 핸드폰 시간과 입력된 오늘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LG전자 TV를 켠다. 뉴스를 보며 아침식사로 시리얼을 먹고 나서 평소 좋아하는 한국산 유자차를 한 잔 한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i30를 타고 회사로 향한다. 가는 길에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음악을 듣고 있다. 하루 일과가 끝난 후 친구와의 약속에는 평소 한국을 잘 아는 패트릭 씨에게 친구들이 한식을 먹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런던 시내에 있는 유명 한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약속장소로 가는 길에 영국 최대 마트인 TESCO에 들러서 한국 식품 몇 개를 사서 간단하게 장을 본다.

위에서 말한 내용은 소설이 아니라 실제 한 영국인의 삶을 조금 각색해서 표현한 것뿐이다. 그만큼 한·EU FTA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었다고 할 수 있다. 소소한 생활소비재에서 건설중장비까지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은 한국산 제품이 영국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인들은 ‘밸류 포 머니(Value For Money)’ 즉 가치소비를 중요시 여긴다. 비싼 물건이 그 만큼의 효능이 있다면 기꺼이 구입을 하는 것이다. 무조건 싸다고 제품을 구입하지는 않는다. 이런 영국인들의 소비성향에 한국산 제품이 적격인 것이다.

올해 2월에 잉크테크라는 인쇄용 잉크를 판매하는 한국기업의 영국법인에서 신상품 출시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총리가 지역구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석해 잉크테크 및 한국 기업들이 현지 고용 창출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영국시장에서의 성공을 기원했다. 잉크테크는 자사 제품인 잉크에 대한 관세가 6.5%에서 무관세로 전환돼 일본, 중국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다른 주력제품인 프린터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산품에 이어 식품에도 FTA의 바람은 불어오고 있다. 2011년 한·EU FTA 발효에 맞춰 시작한 ‘TESCO 한국식품전’은 2013년까지 3년 연속 추진됐다. 테스코라는 영국 대표 유통망을 통해 한국 식품을 소개하고 국가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다른 한국 제품들의 영국 수출 계기를 마련한 것도 하나의 성과다. 런던 시내 한식당에 가면 한국인보다 외국인의 비율이 더 많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한·EU FTA 발효 이후 볼 수 있는 일종의 진풍경인 셈이다. 이제 한식도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영국의 음식문화 중 하나의 소재로 자리를 잡은 듯하다.❷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초민감품목 장기 관세철폐로 그간 잘 막아... 향후 관세 낮아지는 '이행 심화 단계' 대비해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국책연구기관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곳이다. FTA 협상 시에는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 정책기관이면서 농민의 이해를 대변하다 보니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법을 내놓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인지 최세균 원장은 양쪽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지난달 인터뷰한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이

최세균 원장님과 절친이라고 하던데요, 오랫동안 FTA 관련 업무를 같이 했다면서요?

네, 김도훈 원장과는 친합니다. 저는 우루과이 리우드(UR) 때부터 쭉 통상업무를 해 왔죠.

FTA는 한·칠레 FTA 때부터 해 왔구요. 1999년부터 2000년 8월까지 안식년을 가졌는데, 복귀하자마자 칠레와의 FTA 협상을 준비했고,

부원장이 되기 전 한·미 FTA 협상까지 참여했었죠.

직접 참여하셨던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한국이 맺은 FTA 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농업 부문에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가장 개방폭이 큰 FTA인 한·미 FTA의 경우 민감품목은 15~20년에 걸친 단계적 개방을 얻어냈습

니다. 일례로 쇠고기가 큰 이슈였는데 45%의 관세가 15년 간 단계적으로 철폐되도록 했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큰 FTA인 한·중 FTA가 협상 중인데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라면 쌀을 포함한 초민감품목의 시장개방이 이뤄지지 않는 협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협상 전략을 미리 노출시키는 것이 아닌가요?

앵커 아펙트(anchor effect)라는 것이 있는데요, 닷을 미리 내려놓으면 파도가 쳐도 많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즉 처음부터 우리 입장을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효과적 전략이 될 수 있지요.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연구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70년대 후반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1978년 농림부 소속으로 연구원이 설립됐는데, 이후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과 함께 1999년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되었구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니 순수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연구도 해야 합니다. 정책 연구는 이론뿐만 아니라 현실 문제를 풀어야 하고, 국가적 과제에 대한 해답도 내놓아야 하죠. 또한 일반적인 연구소는 산업, 복지, 도시설계 등의 전문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지만, 우리는 농업이라는 산업, 농촌이라는 공간, 농민이라는 구성원을 하나의 문제로 다뤄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적 요구와 농민들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농축산물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최대한 보호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투·융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FTA와 관련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FTA 협상 전연 사전적으로 FTA 파급 영향 분석 및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부문 종량모형(KREI-KASMO)을 개발·운용해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계측합니다. 그 결과를 갖고 협상 대응 방안을 모색하죠. 사후적으로는 FTA 수입 피해 분석 및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FTA 지원 특별법에 의해 2012년 3월 'FTA이행 지원센터'를 개소해 꾸준히 농업피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책수혜자인 농민의 의견을 수립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업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은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WTO/DDA에서도 일본, 대만, 스위스 등과 함께 수입국 그룹인 G10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런 농업분야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해 UR 농업협상 때부터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축산부문의 대표적 경쟁력 자수인 모돈두당출하두수(MSY)는 한국이 16.7두(2013년)로 유럽(24두 이상)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OECD 농업경쟁력 종합지표를 고려해 비교한 결과 전체 34개국 중 중위권인 17위, 비교우위 지표의 하위지표를 고려하면 하위권인 32위에 속합니다.

지금까지의 FTA 체결과 관련한 실질적 농업피해는 얼마나 됩니까?

한·미 FTA, 한·EU FTA의 경우 아직 이행초기로 관세인하 폭이 크지 않아 FTA 수입증가 효

과는 제한적인 반면 국내외 수급 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FTA 발효 10년이 지난 칠레의 신선포도 수입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수입 피해가 가시화되는 않았으나, 국내 과일시장에서 칠레산 포도 점유율은 1%에서 6%로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포도 산업은 FTA 발효 이전 생산규모를 유지하면서 시장가격도 상승했는데, 이는 국내 과일시장의 수요 증가 때문입니다. 그러나 칠레보다 농업여건이 우위인 미국, EU와의 FTA 이행이 진전되면 파급 영향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 FTA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FTA 지원 특별법'에 의거해 2013년도 피해보전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261억 원)과 폐업지원금(819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상 중인 한·중 FTA를 농업 부문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농축산물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최대한 보호할 계획입니다. 그렇더라도 부분적인 시장개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상 시 주요 품목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타결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국내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밭작물의 경우 단기적 소득안정에 초점을 둔 밭농업직불제 확충과 함께 채소류를 중심으로 밭작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투·융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산 농식품의 안전성 우위를 최대한 활용한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및 수출지원 종합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❶



Who is 최세균 원장?

- 1956년생.
- 동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 폐류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박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연구실장, 글로벌협력연구본부장,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지원센터장, 부원장, 원장(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공감 농정위원회 위원,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위원, 외교통상부 FTA 민간자문위원회 위원, 농협중앙회 식사랑농사랑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농정방향과 다양한 추진전략을 제시해 왔음.



글 이청우 한국FTA산업협회 회장

FTA로 제기되는 기업의 새로운 과제들 ‘FTA 활용=원산지 입증’이라는 사고를 넘어서라

‘솔직히 기존 무역과 FTA의 차이를 모르겠다.’ ‘FTA에서 마케팅, 바이어 발굴, 금융, 물류 등을 이야기하는데 뜯 구름잡는 이야기이다.’ ‘FTA는 무역의 일부인데 FTA에 왜 서비스나 ‘그린’, CSR 같은 사항이 들어가나?’ ‘왜 FTA를 원산지 외로 확장하여 해석하는가?’

이상의 질문은 무역과 FTA를 전혀 모르고 FTA 협정문을 읽어보지 않은 일반인들의 질문으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최근 FTA 전문가들로부터 필자가 받은 질문이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들은 어떤가?

‘상품수가 많은 유통업체인데 우리와 FTA를 여러 번 체결하는 동남아의 복합 FTA 체결 국가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어느 FTA를 활용해야 유리한가?’

‘금융기관으로서 고객인 기업에게 어떤 FTA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알아야 신용을 제대로 평가할 것인데, FTA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나라는 우리와 FTA를 체결하고, 어떤 나라는 추후 우리와 FTA를 체결할 예정이고, 어떤 나라들은 우리와 FT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나라들과 많은 FTA를 체결하고 있다. 본사 책임자인 내가 알아야 할 FTA가 수십 개도 넘는 것 같다.’

‘중동과 중남미에 e-러닝 서비스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물어보면 다들 모른다고 한다. 우리는 FTA와 관계가 없는가?’

‘정수기와 공기정화기 필터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필요한 FTA 수출시장의 현지 인증, MRA, 마케팅, 금융조달, 계약 등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가르쳐 주고 지원

해 주는 곳이 아무 곳도 없다.’

이 질문들은 최근 필자가 기업들에게 받은 하소연이자 항의들이다. 매우 구체적이고 절박하다.

FTA 전문가들과 기업 현장이 괴리되는 이유는?

위에서 본 FTA 전문가들의 질문과 아래에서 본 기업현장의 항의와 지원요청을 비교해 보면 큰 괴리가 있음이 분명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 이유는 현장에서 보면 명확하게 보인다. 첫째는 FTA에 대한 인지부조화 현상 때문이다. FTA는 책상 앞에서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현장에서 싸워 이겨야 1달러라도 돈을 버는 현장 배틀 산업임을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 사이로 효과(조직 장벽과 부서 이기주의를 의미)에 의해 인지부조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FTA 정책, 교육, 컨설팅 등에 현장을 반영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는 현장 FTA 전문가 부족이다. FTA는 무역에서 출발해 서비스, 투자, 노동, 문화 등 그 영역을 넓히면서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원산지 전문가 외에 현장 FTA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수많은 FTA들이 상호호환이 불가한 폐쇄시장이어서 일일이 다 현장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무역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이 현장 FTA 전문가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 셋째는 FTA 투자부족이다. 기 체결한 FTA도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우리나라로도 지속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또한 우리와 FTA를 추진한 국가도 계속 FTA를 추진하며, 다자·복합 FTA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대기업조차도 따라가기가 버겁다. FTA에 대한

인력양성, 연구,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가 필요 한 이유이다.

시급하고도 중요한 FTA의 과제들

문제가 도출되었으면 답은 나온다. FTA 박방시대에 원산지 외에 봐야할 것들, 즉 FTA로 제기되는 기업의 새로운 과제들은 너무도 많지만 지면상 중요하고도 시급한 몇 가지만 기업, 정부, 대학 등에 제안하고자 한다.

①원산지와 더불어 다른 FTA 가치사슬도 교육하자.

설문조사를 해보면 기업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이어 확보다. 바이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사, 시장진입 조건 극복, 마케팅, 신용조사, 협상 등의 실행조건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전략적 선택, 자원 동원 가능성, 벤더 관리, 리스크 관리, 정치·정책적 고려, 납기준수 여부 등 경영 전략적 판단이 서야 교역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계약 이행단계 절차 중 한 분야인 원산지·통관 교육은 물론 시장진입 조건, 마케팅, 바이어 발굴, 협상 등 계약 실행단계와 더불어 교역의 핵심인 계약, 계약이행 단계 나머지 절차인 지금조달, 구매, 생산, 포장, 상역, 보험, 안전, 물류, 결제 등 교역의 중요한 프로세스 등을 FTA 교육에 포함시켜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아울러 원산지만 강조하다보니 단순 제조업을 제외하는 서비스, 지식, 문화 등의 산업이 소외되고 있음은 물론, 제조업과 서비스, 지식, IT 분야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되는 플랜트, 도시수출, 자원개발, e-러닝, e-정부 등의 융합, 복합 산업 등이 FTA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②종합 FTA 전문가를 양성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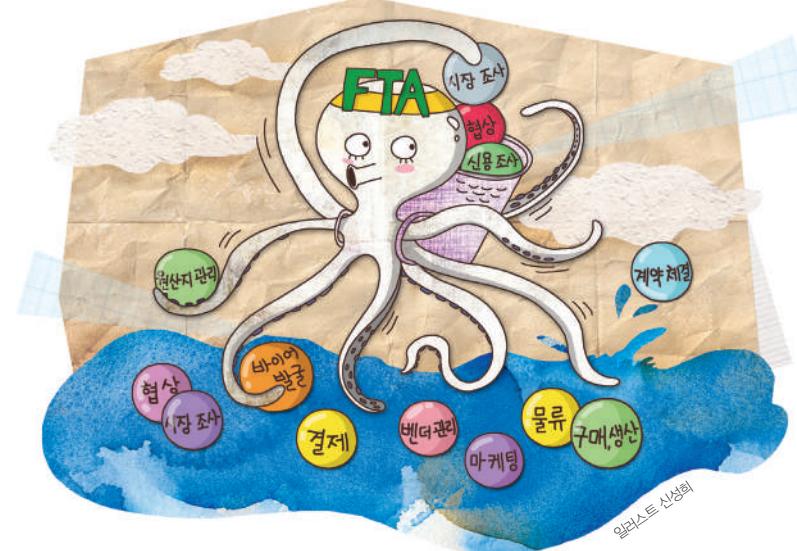
현재 대학, 기관, 지자체 등에서 몇 년 째 FTA 원산지 전문가를 중복, 반복하여 대량으로 양성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정부의 관세·통관 분야 전문가 양성 과정과 겹치고, 2014년 개정된 관세사 법과의 상충도 우려된다. 현장에서는 원산지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FTA 전문가를 원하고 있으니 정부는 다른 분야 FTA 전문가도 양성해야 한다. 이제 원산지 분야 전문가 양성은 기존의 관세분야 정부 부처에게 맡기고, 다른 부처는 전문 인력이 거의 없는 자기 분야의 FTA 전문가나 종합 FTA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③서비스 FTA를 활성화해야 한다.

FTA에서는 이미 법률, 세무, 회계,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이 개방되어 있다. 또한 유통, 금융, 건설, 환경 심지어 디자인 분야에서도 FTA에 대한 니즈가 나타나고 있다. 곧 서비스 복수국가협정(TISA)도 마무리될 예정이고, 서비스가 활짝 개방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우리는 가입해야 한다. 또한 한·중 FTA에서는 우리 서비스가 진출해야 하니 정부는 서비스 분야의 FTA를 더 늦기 전에 활성화 시키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에 투자해야 한다.

④다자·복합 FTA에 시급히 대비하자.

현재 우리나라 TPP 가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다자 FTA인 TPP는 기존의 12개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코스타리카, 대만 등도 가입을 희망하므로 거대한 공동시장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면 일본, 뉴질랜드, 멕시코와는 신규로 FTA를 체결하게 되는 한편, 싱가포르와 세 번, 베트남과 세 번, 미국, 호주,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과도 두 번의 복합 FTA를 체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매 거래마다, 매 항마다 교역국가와 체결한 여러 복합 FTA 중에서 가장 유리한 FTA를 상품 별로 검토해 선택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가중될 전망이고, 스파게티 볼 효과가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업에서는 대응방안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다자·복합 FTA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❷



박인규 애플수박농장(주식회사 위드) 대표

세계 최초 '애플수박' 재배… 없어 못 파는 '귀하신 몸'

올해 첫 출시된 '애플수박'의 인기가 심상찮다. 국내 대형 백화점 3사와 일부 대형 마트에 공급되고 있는 애플수박은 이름처럼 사과만한 크기에 불과하지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 공급이 딸릴 지경이다. 애플수박이 본격 시판된 것은 세계 최초의 일로, 경북 문경 출신의 젊은 농부인 박인규 농업회사법인 위드 대표(42)의 끈기와 열정이 빛어낸 결과물이다.



지난 6월 26일, 서울에서 3시간 걸려 찾아간 문경시내는 한산했다. 간간이 보이는 사람도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대부분이다. 전형적인 시골의 풍경이다. 점심을 먹고 박인규 대표의 농장을 찾았다. 갓 모내기한 벼들이 파릇파릇한 초록의 빛을 뿜내는 가운데 애플수박이 재배되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가한 바깥 풍경과 달리 작업동에서는 4명의 여성 일꾼들이 재배동에서 실어 온 열매들을 크기대로 분류하고 포장해서 박스에 담느라 분주했다. 2시 30분에 오기로 예정된 트럭에 실을 물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한 대의 트럭이 도착해 궤쪽에 실린 제품을 가져가기 바쁘게 또 다른 트럭이 도착해 물건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 명의 40대 여성이 농장을 방문했다. "신문에서 보고 신기해서 찾아왔다"고 했다. 이들이 다녀간 뒤에도 부부로 보이는 40대 남녀가 찾아와 애플수박을 사갔다. 한편 취재진에 설명을 하는 박인규 대표의 전화는 속된 말로 '불이 나고' 있었다. 6월 13일 출시된 이래 언론에 소개되면서 지인들을 비롯한 상인들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 중이다. 이렇게 바쁜 이유는 전 세계에서 애플수박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이 그뿐이기 때문이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니 당연히 '몸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



1 사과 정도 크기의 애플수박은 1~2인 가구가 많은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에 잘 맞는 제품이다. 2 한정된 생산량에 찾는 곳이 많아서 요즘 농장은 늘 분주하다. 트럭을 기다리고 있는 애플수박 상자들. 3 박인규 대표(사진)는 사과처럼 하늘에 대롱대롱 열린다고 해서 애플수박으로 이름을 붙였다.

가락시장 유통상인을 사로잡은 애플수박

박 대표가 애플수박을 권했다. 빨간 과육은 일반 수박과 맛이 흡사했다. 다만 식감은 조금 더 아삭했다. 씨는 거의 없었고, 2~3mm에 불과한 두께의 껍질은 취향에 따라 그냥 먹어도 된다. 일반 수박과 달리 먹고 난 뒤 쓰레기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 "1~2인 가구의 증가로 사과 크기의 수박이 '먹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수박은 한 번 자르면 다 먹기도 힘들고, 보관도 어렵고,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박 대표가 애플수박 재배를 결심한 이유다.

알려진 것과 달리 애플수박은 박 대표가 직접 개발한 것은 아니다. 실제 개발은 한 외국계 종묘회사지만 이를 눈여겨보고 재배를 처음 시도한 것이 박 대표다. 종묘회사에서 제품을 개발한다고 해서 모두 시장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를 재배하는 농민이 있어야 생산이 가능하고, 또 소비자에게 팔릴 만큼 상품 가치를 지녀야 한다. 박 대표는 2010년 장호원의 한 연구소에서 처음 이를 봤을 때의 신선한 충격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일단 모양이 너무 예뻤습니다. '이거 물건 되겠다. 무조건 해야 한다' 싶었죠."

사실 박 대표는 농민은 아니었다. 가락시장

에서 농산물 유통업을 하던 장삿꾼이었다. 농민이 아니라 장삿꾼이었기 때문에 애플수박의 가치를 알아보았는지도 모른다. 사실 처음엔 직접 재배가 아니라 위탁 생산을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기존 수박 농가 어디에서도 박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자기 힘으로 재배를 시도해야 했다. 2011년부터 유통업을 하는 틈틈이 고향인 문경에서 시험재배에 착수했다. 농삿꾼의 자식이라 겁 없이 덤볐지만, 실패를 거듭했다. 기본적인 병충해 방지는 물론 당도를 높이지 못해 상품 가치가 없었다. 아는 유통상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제품 한 번 달라고' 했지만, 스스로 품질에 용납이 되지 않았다.

농업 경쟁력 역시 새로운 제품 개발에 있어

2013년 여름, 문경의 비닐하우스 세 동에서 아예 먹고 자며 재배를 했다. 어느 정도 품질이 올라왔다. 종자를 제공한 종묘회사 관계자와 연구진들을 불러 품평회를 열었다. "잘 키웠다. 맛있다"는 반응들이었다. 그러자 일단 소비자의 반응이 궁금했다. 문경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체험판매를 해봤다. 소비자들 역시 세상에서 처음 보는 '귀여운' 수박에 열광했다. 그 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애플수박

이 인기몰이를 한 것이 올해 대량재배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다.

지난 해 재배규모의 10배에 이르는 1만 3200㎡ 넓이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애플수박을 재배했다. 이렇게 해서 올해 6월 13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일제히 판매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농산물이 됐다.

애플수박이란 이름은 박 대표가 직접 지었다. "머리 위로 대롱대롱 열려 있는 모습이 사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애플수박이 나올 수 있었던 데는 박 대표가 상인이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유통을 해 봄 감(感)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농민은 한 해 농사를 망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설불리 불확실한 시도를 하지 않지만, 그는 유통업을 본업으로 하고 있어서 부담이 적었다.

앞으로 박 대표는 애플수박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할 계획이다. "2~3년 지나면 너도나도 애플수박을 재배할 겁니다. 그럼 가격이 저렴해지겠죠. 새로운 제품을 내놔야 협상력을 가지고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 대표와 애플수박의 사례는 우리 농업의 가야 할 길을 새삼 깨닫게 하고 있었다.❷

TG삼보컴퓨터 'SE-8001'

청계천 작은 골방에서 시작된 꿈, 세계를 공략하다



1981년 국내 최초로 개발된 SE-8001. CPU 속도는 1MHz, RAM 용량은 48KB였지만 당시 가격은 1000만 원에 달했다. 삼보엔지니어링은 이 모델을 바탕으로 다음해 캐나다로 첫 수출을 시작했다.

1980년 7월 2일, 청계천에 공학도들이 모여 작은 회사를 설립한다. 당시만 해도 용어조차 생소했던 '컴퓨터'에 주목한 이들 7인은, 컴퓨터 생산의 국산화에 힘을 쏟았다. 창업 후 고작 6개월이 지난 후, 이들은 도전에 성공하고 이듬해에는 수출길까지 떴다. 삼보의 발자취는 현재 IT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

깔끔하게 복원된 지금의 청계천을 생각하면 옛 모습이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물길을 따라 빠곡하게 들어서 있던 판잣집들도, 한국

경제 급성장을 상징하던 청계고가도 이젠 사라지고 없다. 그 자리에는 하늘을 찌를 듯 높게 솟은 마천루들과 숨 가쁜 하루를 보낸 시민들의 아득한 쉼터가 들어섰다.

질곡의 세월이었던 만큼 청계천에서는 수 많은 꿈들이 피어났다.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곳'이 청계천이라 했던가. 이런 천혜의 조건은 성공을 향해 발을 내딛은 '한국의 원

조 벤처'들이 모여들게 했다. 삼보도 이 중 하나다.

1981년 '대한민국 1호' 컴퓨터 탄생

삼보가 문을 연 것은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인 1980년 7월 2일이었다. 창업자인 이용태 전 TG삼보컴퓨터 회장은 6명의 동업자와 함께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청계천 한 구석에 회사를 차렸다. 창업 초기 사명은 '삼보엔지니어링'이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단순 소매상이나 조립업체를 꿈꾼 것이 아니

었다. 삼보엔지니어링은 '최초의 국산 컴퓨터 제조'를 목표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삼보의 이 도전은 다소 무모한 것으로 보였다. 당시 국내 컴퓨터 시장은 전적으로 외제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삼성, 금성 등 대기업 위주로 컴퓨터를 생산하고 있긴 했지만 미국·일본 등 외국에서 부품을 도입해 사무용 컴퓨터나 미니컴퓨터(개인용 컴퓨터)와 대형 컴퓨터의 중간 단계에 있는 컴퓨터를 조립하는 수준이었다. 자체 개발은 프린터나 모니터 등의 주변 기기에 머물러 있었

다. 당시만 해도 기술 후진국이었던 한국에서 컴퓨터 생산의 국산화는 먼 미래의 일로 여겨졌다.

작은 중소기업이었던 삼보가 이 일을 해낸 것은 창업으로부터 불과 6개월이 지난 1981년 1월이었다. 대한민국 1호 컴퓨터의 탄생이다. 모델명은 SE-8001로 1980년대에 처음으로 출시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1981년은 공교롭게도 전 세계 PC의 표준이 된 IBM PC의 출시가 있었던 해이기도 하다.

SE-8001은 텔레비전 수상기에 전동 터치기가 붙어 있는 형태였다. 과학 계산은 물론 재고 관리, 수요 예측 등 경영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가장 큰 특징은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모니터를 국산품으로 사용했다는 점이었다. 주기억장치 내의 핵심부품인 전원공급장치를 자체기술로 개발해 컴퓨터의 회로안정성을 높이기도 했다. 48KB의 메모리와 1MHz의 CPU를 내장하고 있었는데, 현재 보급형 일반 컴퓨터의 CPU가 3GHz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3000분의 1 수준이다. 보조기억장치는 기존의 카세트테이프를 이용해 자료 입력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SE-8001의 가격은 1000만 원 정도였다. 상당한 고가였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 보급되긴 어려웠다. 당시 직장인 평균 급여는 25만 원 수준. 보너스까지 합쳐서 3년을 고박 모아야 이 제품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긴 힘들었다. 이 제품은 주로 기업에서 회계관리용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SE-8001을 통해 삼보는 명성을 쌓을 수 있었다. 굴지의 대기업을 제치고 한국 최초 컴퓨터 국산화에 성공한 삼보를 상

대한민국 1호 컴퓨터의 탄생이다. 모델명은 SE-8001로 1980년대에 처음으로 출시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1981년은 공교롭게도 전 세계 PC의 표준이 된 IBM PC의 출시가 있었던 해이기도 하다.

저들에게는 매력으로 다가갔다.

삼보의 질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로도 이어졌다. 삼보는 1985년 '보석글2'라는 이름의 워드프로세서를 출시했다. MS-DOS 환경의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최초로 대중화된 워드프로세서다.

1985년에는 국산 컴퓨터 언어를 수출하기도 했다. 삼보가 오랜 연구끝에 개발한 16비트 PC용 컴퓨터 언어 '삼보RPG(Report Program Generator) 2'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일본과 미국에 수출된 것이다.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돋고, 프로그램 개발 기간을 3분의 1로 단축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 제품은 시스템 당 일본에서는 16만 엔, 미국에서는 700~1000달러에 공급됐으며 삼보에서는 판매액의 10%를 로열티로 받았다.

컴퓨터 수출의 반경도 미국, 서독, 노르웨이, 영국, 스페인, 인도, 태국으로까지 넓어졌다. 삼보발(發) 컴퓨터에 대한 인기도 높아졌다. 미국 잡지 PC워크는 "벤처 비즈니스로 출발한 삼보가 트라이젬88을 미국에 대량 수출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으며, 컴퓨터 평론가인 존 드보라크는 "칩만 바꿔 끼우면 IBM XT에서 AT기능을 발휘하는 요술 기계"라고 높이 평가했다.

삼보는 창업 후 34년 간 한국의 컴퓨터 역사에 최초의 기록을 쌓아가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무모할 것 같았던 꿈을 현실화시켰고 이것은 컴퓨터 대중화로 이어졌다. 삼보가 불리일으킨 컴퓨터 열풍은 IT 인재 양성의 시작이 됐으며, 삼보의 성공에 자극을 받은 대기업들의 PC시장 진출은 IT 강국으로 발전하는데 시금석 역할을 했다.❶

떡 : 변신 또 변신하며 세계로 뻗어간다



떡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쌀을 주식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음식이다. 중국의 떡은 한대(漢代)를 거슬러 올라가야 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음식이며, 일본의 '모찌'는 명절이나 축일에 반드시 등장할 정도로 지금도 널리 사랑받는 음식이다.

그러나, 문화가 각기 다른 만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재료와 만드는 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국은 밀가루를 주재료로 굽거나 찌는 형태이며, 일본은 찹쌀을 재료로 쪄서 만드는 떡이 많다. 한국에서는 멱쌀가루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동기 시대부터 '찌는 떡' 흔적 발견
떡은 한자로 '병(餅)'이라 한다. 어원을 살피려면 중국 한대(漢代)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음식이며, 일본의 '모찌'는 명절이나 축일에 반드시 등장할 정도로 지금도 널리 사랑받는 음식이다.

그러나, 문화가 각기 다른 만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재료와 만드는 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국은 밀가루를 주재료로 한 떡은 '병'으로 나뉘어졌다. 한국에서는 찹쌀을 위주로 만들어 왔으므로 '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재료 구분 없이 '떡'이라고 하고 한자로 표기할 경우에는 '병'이라고 한다.

떡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으로서 오래 전부터 식생활 전반에 걸쳐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빵의 등장과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예전만큼의 위상은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몇 해 전부터 불기 시작한 웰빙 바람으로 떡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떡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디자인, 맛, 재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시도들은 떡의 세계화에 일조하고 있다.

떡의 기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황해도 봉산 지탑리, 암사 선사유적지,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지 등의 유적 조사를 통해 신석기 시대가 아닐까 추측되고 있을 뿐이다. 갈돌과 갈판, 화덕터 등의 존재로 미루어보아 이때는 굽거나 지진 형태의 떡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찌는 형태의 떡은 청동기시대 혹은 초기 철기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나진초도 패총과 같은 이 무렵의 유적지에서 연석(곡식이나 열매 따위를 갈 때 쓰던 돌)이나 확돌(작은 절구)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또한 무문토기 시대 유적, 김해문화 삼국시대 고분 등에서는 떡을 찌는 '시루'가 발견되기도 했다. 고구려 시대의 벽화인 황해도 안악 제 3고분의 벽화나 황해도 약수리 벽화에는 시루에서 음식을 찌고 있는 그림이 발견됐다.

삼국시대를 건너오면서는 더욱 다양한 문헌과 유적에서 떡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백결 선생의 이야기가 있다. 가난한 나머지 설에도 떡을 찌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떡방아소리와 비슷한 곡으로 거문고를 탔다는 이야기다. 또한 삼국사기에는 남해왕 사후, 차기 왕을 정할 때 떡을 깨물어 잇자국이 많은 이를 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가 많은 사람이 현명하다는 이유다. 또한 삼국유사에는 화랑 죽

지랑이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술과 함께 떡을 들고 갔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다.

이후 떡은 양곡 생산 및 각종 의례의 증가로 더욱 발전하게 됐다. 고려시대에는 송불정책으로 말미암아 불교 의례가 증가하며 떡의 수요가 증가했고 이는 떡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고려 후기에는 몽고의 영향 하에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만드는 떡인 '상화병'이 수입됐는데 이것이 '술빵'으로 불리는 증편으로 발전했다는 설이 있다. 조선시대로 건너오며 재배하는 곡물과 채소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종류와 모양의 떡이 만들어졌다.

심심풀이 간식에서 웰빙 식품으로 변신

오랫동안 식생활과 밀접했던 떡이었지만 최근 상황은 좋지 않다. 이는 서양 식문화의 유입으로 빵이 등장한 탓이 크다. 빵이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떡은 부식으로서의 자리를 빵과 나눠 가져야 했다. 생일에 떡보다는 서양식 케이크를 먹는 것이 일반화 됐으며, 예전처럼 집에서 직접 떡을 만들어 먹는 가정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 그만큼 떡은 예전의 위상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그렇지만 떡은 새로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음식에 적용되며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국민 간식 '떡볶이'

의 주재료는 누가 뭐래도 떡이며, 면발만으로

는 성이 차지 않는 사람들은 라면에 얇게 썬 가래떡을 함께 넣어 먹기도 한다. 또한 밀가루 음식보다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높다고 알려지며, 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떡은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했던가. 디자인은 더욱 세련돼졌으며 맛도 역시 다양해졌다. 단호박, 생딸기, 쑥, 흑미 등 쓰이는 재료의 범위도 훨씬 넓어졌다.

최근에는 떡 케이크가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다. 백설기를 쌓아놓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르다. 무화과, 대추, 호박 등으로 가득 채운 전통적인 떡 케이크부터 아몬드, 열대 과일, 코코아 등 이국적 재료로 꾸며진 퓨전 떡 케이크까지 다양한 종류가 판매되고 있다. 또한 커피숍에서 커피와 함께 케이크를 먹듯, 전통차와 함께 떡을 먹을 수 있는 '떡 카페'도 등장했다. 떡을 좀 더 친숙하게 하기 위한 시도들이다.

떡은 세계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도 변모해가는 중이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굳지 않는 떡, 일명 '요술떡'이 개발돼, 이 기술이 미국에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두 달이 지나도 만들 때의 쫄깃함과 말랑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통기한이 짧다는 단점을 극복하게 한 것이다. 이 기술은 국내에서 만든 떡이 그대로 해외에 수출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라이스클레이(먹을 수 있는 쌀 점토) 등 응용 제품도 만들어져 단순히 먹기 위한 음식이 아닌 공예로서의 음식으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서울 인사동 등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에는 이따금 전통 떡 체험 행사가 벌어진다. 외국인들이 무거운 떡메를 들고 절구 속의 흰 떡을 치며 즐거워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떡메 소리가 세계에 울려 퍼져, 떡이 지난 은은한 맛과 향에 끌리는 외국인들이 더욱 늘어나길 희망해본다.❶



한국인의 간식이었던 떡은 최근 웰빙 음식으로 거듭나며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또한 현대적 감각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며 세계화에도 나서고 있다.

자유무역의 역사-⑥유럽연합(EU)

평화와 공동 번영의 꿈으로 일궈낸 유럽 통합

휴가철을 맞아 유럽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유럽 여행의 편리한 점은 국경 이동의 제약이 거의 없고 유로(Euro)라는 단일 화폐를 사용해 환전의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 내 28개 국가가 국경 간 장벽을 허물고 유럽연합(EU)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경제통합체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인구 5억 명,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단일공동체인 EU는 그동안 이룬 경제통합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외교안보 등으로 통합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세기 전반 두 차례에 걸쳐 참혹한 세계 대전을 경험한 유럽 국민들은 그처럼 비극적인 전쟁을 두 번 다시 치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매우 강하게 갖게 되었다. 또한 역내 평화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전후 재건을 도모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국가 간 협력과 단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무력으로 프랑스를 침공하여 양국 간 국민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협력의 모멘텀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 5월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슈망(Robert Schuman)은 무기 생산의 주원료인 석탄과 철강을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전쟁을 방지하자는 플랜을 제시했다. 이에 1951년 4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창설을 위한 '파리조약'을 맺고, 이듬해 ECSC를 출범시켰다. ECSC 회원국들은 석탄과 철강 부문에서의 경제통합 경험을 바탕으로 1958년에는 '로마조약'에 근거해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유럽핵에너지공동체(EURATOM)를 출범시켰다.

ECSC와 EURATOM은 특수한 부문에 한정해서 운영되는 공동체인 반면, EEC는 대외공동관세의 설정 및 생산요소의 이동 등 경제 전반의 보다 넓은 영역을 아우르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당시 영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등으로 인해 선뜻 EEC 가입을 결정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1961년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과 EEC보다 느슨한 형태의 EFTA(유럽 자유무역연합)를 설립했다.

1951년 창설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통합의 단초

1967년 7월 EEC 6개 회원국들은 그동안 같은 회원국끼리 각각 별도로 운영해 왔던 EEC, ECSC와 EURATOM을 하나로 합쳐서 유럽공동체(EC)를 출범시켰다. EFTA를 주도했던 영국은 EC가 출범한 이후 1973년 덴마크, 아일랜드와 함께 EC에 가입하였고, 이로 인해 EC는 처음으로 회원국을 9개로 확대하게 되었다. 이후 1981년 그리스가 10번째 EC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1986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함으로써 회원국은 모두 12개가 되었다.

1992년 EC 회원국들은 시장의 통합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통합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s Treaty on European Union)'을 체결하였고, 이듬해 이를 발효했다. 이 조약은 유럽중앙은행의 창설과 단일통화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통화동맹(EMU)의 형성, 노동조건 통일에 관한 사회부문 협력, 공동방위 정책, 유럽시민권 규정 등 4개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발효로 EC는 유럽연합(EU,



▲ 유럽연합의 역사는 참혹한 세계대전을 반복하지 않고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사진은 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인 올해 6월 26일 벨기에 이프레스의 전시자 묘역 '메닌 게이트'에서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가운데 오른쪽)과 조제 마누엘 바흐주 EU 집행위원장(가운데 왼쪽)을 비롯한 EU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희생자 추모식 모습.

European Union)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1993년 EU가 출범하면서 회원국도 크게 늘어났는데, EU 설립 당시 12개국이었던 것이, 1995년 1월에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을 포함하여 15개국으로 확대됐다. 또한 1999년 1월에는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이 창설됐고, 2002년 1월부터는 ECB가 독점적으로 유로화를 발행함으로서 마침내 통화동맹을 달성하게 되었다. EMU에 가입하고 유로화를 법정통화로 통용하는 국가들을 일컬어 '유로존(Euro-zone)'이라고 하는데, 초기 멤버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11개국이 참여했다. 영국, 스웨덴 등은 EU 회원국이지만 유로존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2004년 5월에는 동구권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등 10개국이, 2007년 1월 1일에는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EU에 가입함으로써 EU 경제통합이 동구권까지 확대되는 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2009년 12월 EU는 '리스본 조약'의 발효와 함께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새로 선임하고, EU 외교부에 해당하는 유럽대외관계청(EEAS)을 신설하는 등 혁신적인 조

치들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EU는 정치, 외교, 안보 영역 까지 통합을 확대함으로써 명실공히 유럽통합의 꿈을 한 층 더 구체화 시킬 수 있었다.

지금도 계속 영역 넓히는 중, 유로존도 확대 추세

2014년 6월 현재 EU 회원국은 지난해 가입한 크로아티아를 포함하여 28개국에 달하며, 그 가운데 유로존에 가입한 나라들은 독일, 프랑스 등 총 18개국이다. 또한 2014년 6월 리투아니아가 유로존 가입 승인을 얻어 2015년부터는 리투아니아도 유로화를 사용하게 된다.

유럽통합의 역사가 이처럼 복잡한 것은 회원국들이 어떤 위기에서도 유럽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꿈을 버리지 않고, 통합체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플랜(조약)들을 끊임없이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유럽 통합의 역사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동북아 3국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FTA 협상 과정에서 때로는 과거 식민역사의 진재와 갈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동북아 국가들이 진정으로 역내 경제적 번영과 평화의 정착을 열망한다면, FTA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촉발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랜(아이디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❷

세계의 FTA-⑥EU의 FTA 추진동향

정치·사회까지 통합된 FTA 추구... 2000년대부터 경제적 관점으로 전환

EU는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주도해 온 핵심축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중국 및 신흥국들의 성장세가 지속되며 EU 시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겪으며 휘청하던 EU가 최근 긍정적인 경제 성장 신호를 보내고 있어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로 관심이 회귀하고 있다. 또한 EU는 ASEAN 국가 등 신흥국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선진국 간 FTA가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발효(32건 54개국)

- OCTs FTA(EU 회원국령 19개 지역, 1977년 1월)
- EFTA FTA(개별국, 1973년 1~7월)
- EFTA FTA(전체, 1977년)
- 시리아 CA/FTA(1977년 7월 Co-operation Agreement 발효, 2004년 FTA 타결)
- 안도라 CU(Customs Union, 1991년 7월)
- 산마리노 CU(1992년 12월 잠정 발효)
- EEA(European Economic Area=스위스 제외한 EFTA 3개국과 EU 회원국, 1994년 1월)
- 터키 CU(1995년 12월)
- 이스라엘 AA(1995년 Interim Agreement 발효, 2000년 6월 Association Agreement 발효)
- 폐로 제도 FTA(1997년 1월)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AA(1997년 IA 발효, 2012년 1월 AA 발효)
- 튜니지 AA(1983년)
- 남아프리카 공화국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2000년 1월)
- 모로코 AA(2000년 3월)
- 멕시코 FTA(2000년 7월 상품, 10월 서비스 발효)
- FYROM SAA(Foreign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001년 IA 발효, 2004년 5월 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발효)
- 크로아티아 SAA(2002년 IA 발효, 2005년 2월 SAA 발효, 2013년 7월 EU 가입)
- 요르단 AA(2002년 5월)
- 칠레 AA(2003년 2월 상품 발효, 2005년 3월 전체 협정 발효)
- 레바논 AA(2003년 IA 발효, 2006년 AA 발효)
- 이집트 AA(2004년 6월)
- 알제리 AA(2005년 9월)
- 알바니아 SAA(2006년 IA 발효, 2009년 4월)
- 몬테네그로 SAA(2008년 IA 발효, 2010년 5월)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SAA(2008년 7월 IA 발효)
- 세르비아 SAA(2010년 2월 IA 발효)
- 한국 FTA(2011년 7월 잠정 발효)
- 이라크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2012년 8월 발효)
- 페루·콜롬비아 AA(2013년 3월)
- 중미 FTA(2013년 발효)



서명 및 타결(4건 4개국)

- 싱가포르 FTA(2013년 9월 가서명)
- 조지아 AA(2013년 11월 가서명)
- 몰도바 AA(2013년 11월 가서명)
- 캐나다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2013년 10월 잠정타결)

'글로벌 유럽' 정책으로

FTA 체결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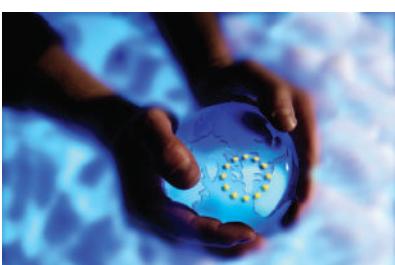
EU는 그 자체가 발전된 형태의 FTA이다. FTA를 지역 간 경제통합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초보적인 단계가 FTA이고, 가장 발전된 형태가 EU와 같이 경제·정치 통합까지 진전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 EU는 FTA 체결에 있어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정치·사회 분야를 포괄하는 형태로 접근해왔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유 무역을 확산하고자 하는 보편적 FTA와는 다른 의미를 가졌다 것이다.

EU가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미로서의 FTA 체결에 눈을 돌린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이전의 EU는 WTO의 다자통상체제에 중심을 두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상들에만 관심을 두었다. 안도라, 터키 등과 체결한 관세동맹 역시 이러한 접근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WTO의 DDA 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아시아, 중남미 국가 등이 양자 중심의 FTA를 체결하자 2006년 EU는 글로벌 유럽 전략(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EU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등 경제적 이익을 중심에 둔 FTA 체결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세계의 FTA 조류가 점차 확산되며 대외수출 시 EU 기업들이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발현된 것이다. 이 때 EU는 6개 경제권(한국, 인도, 러시아, ASEAN, GCC, MERCOSUR)에 대해 우선적으로 FTA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후 우리나라와 FTA를 잠정 발효(2011년 7월), 싱가포르와 FTA 가서명(2013년 9월)을 완료하는 등 FTA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그동안 경제적 취약성 등을 이유로 특혜를 허용해왔던 과거 유럽식민지로부터의 것이다. AA는 EU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볼 수

독립 국가들, ACP(아프리카, 카리비안, 태평양 연안) 국가들 등에 대해서는 현재의 일방적 혜택보다는 상호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궁극적으로는 FTA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GSP¹⁾ 혜택을 주던 개도국들에 대해서도 국가의 경쟁력이 향상되면 이들에 대해 부여하던 일방적 관세혜택을 대체하는 FTA로의 전환을 통해 호혜적인 협정을 추구하도록 했다.



있는데, 경제·정치·사회 등의 포괄적 협력과 통합을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 포함된 DCFTA는 특히 경제적 부문의 내용도 담고 있다.

EU 집행위원장 취임으로

FTA 체결에 새로운 동력 얻어

EU는 신흥국, 선진국과의 FTA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ASEAN 국가들과의 협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임은 물론 2013년 미국과 TTIP²⁾, 일본과의 FTA 협상을 개시했다. 이들과의 FTA는 그동안 선진국-개도국, 개도국-개도국 중심으로 이루어었던 경향과 달라 협상의 귀추가 주목된다.

나아가 2015년에는 FTA 추진에 더욱 힘찬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이끄는 새로운 지도부가 올해 11월부터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EU 28개 회원국은 각국의 권한에 속하는 FTA 협상 체결권을 EU 집행위원회에 위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EU 집행위원회가 EU의 FTA 협상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새 집행위원장의 취임은 현재 EU가 추진하고 있는 FTA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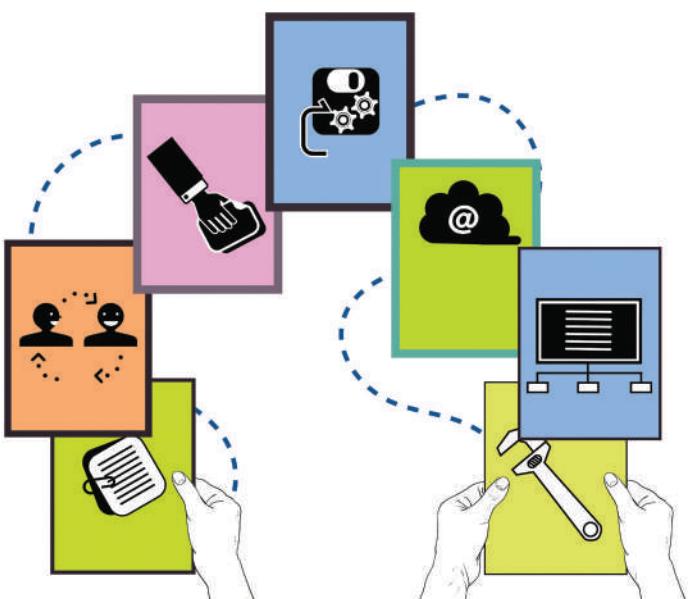
1)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일반특혜관세제도):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4년 현재 90여 개국에 적용

2)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미국과 EU가 협상을 진행중인 FTA로 2013년 7월 협상을 시작해 현재 4차 협상(2014년 3월)까지 진행되었음

원산지관리 실무-⑤작성대장, 서명카드 등

FTA 활용, 첫 단추부터 확실히 꿰자

FTA 관련 서류의 서명자를 지정하고 서명카드를
비치하는 것은 FTA 활용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적인 부분을 간과한 회사는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서명카드부터 확실히 해 두면
상대국 세관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의 서명이 필요하고 서명은 반드시 서명권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출자는 사전에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준용하여 원산지(포괄) 확인서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도 국내 납품하는 자제의 원산지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발급하는 공식적인 원산지 증빙서류이므로 이를

우리는 아직 서류에 서명을 하는 것보다 도장을 날인하는 것에 더 익숙해 있지만, FTA 관련 서식에는 반드시 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는 해당 서류 발급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서명권자는 대표 이사 등 1인으로 한정지를 필요는 없으며 업무와 관련된 책임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오히려, 대표 1인으로 서명권한을 한정짓게 되면 대표자의 부재 시 부득이하게 대리 서명이 이루어지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게 될 소지가 다분하게 된다.

발급하고자 하는 업체도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권자로 지정된 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수 있는 서명권자의 지정 및 해제를 관리하기 위한 서류인 서명카드는 원산지 검증 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그리고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종전 서명권자의 해제 시에는 해제일자 및 사유를 기재한다.

FTA 특례법 시행령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회사는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해

당 서명권자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준용하여 원산지(포괄) 확인서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도 국내 납품하는 자재의 원산지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발급하는 공식적인 원산지 증빙서류이므로 이를 발급하고자 하는 업체도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권자로 지정된 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수 있는 서명권자의 지정 및 해제를 관리하기 위한 서류인 서명카드는 원산지 검증 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그리고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종전 서명권자의 해제 시에는 해제일자 및 사유를 기재한다.

서명카드 양식은 FTA 특례법 고시 별지 서식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명카드는 원산지 검증 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에는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판정 이력 관리와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대장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에는 발급번호, 발급일자, 수출신고번호, 수리일자, 품명·규격, HS 코드, 수량, 금액, 원산지, 거래 상대방, 협정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등 작성내역을 작성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기관 및 자율 발급방식에 관계없이
회사 내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하고
발급내역을 관리하도록 한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양식은 FTA 특례고시 별지 서식에
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자가 수출자인지, 생산자인지, 수입자인지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작성항목들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참고로, FTA 특례고시 별지 서식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과 함께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양식도 있는데,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은 증명서 발급기관용 양식으로 기관발급방식의 경우 발급기관 역시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원산지증명서와 더불어,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작성할 때도 발급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서식에 준하여 별도 서식에 따라 그 발급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흐름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03 원산지관리전담자

- FTA 활용을 위해서는 기업 내 FTA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하고, 원산지관리 전담자가 서명카드 작성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을 마련한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에 사용됐던 모든 서류를 일정한 체계 하에 보관해야 한다. 이렇듯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증빙서류의 유지·관리, 사후검증 대응은 원산지관리전담자에 의하여 일관되게 관리되어야 한다. 원산지관리전담자는 FTA 업무에 따른 업무 부담이 필연적으로 가중된다. 따라서 구매, 생산, 영업, 재무·회계 등 각 부서별 기능에 따라 FTA와 관련한 업무를 배정하고 지정된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서류보관

-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을 사후에 검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작성한 생산자는 이를 위해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및 확인서를 언제라도 확인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원산지증빙서류는 작성일이나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입증책임은 '수입자→수출자→생산자' 순이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관,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수출자 및 생산자가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반드시 보관해야 할 서류는 자재명세서(BOM), 원자료 수입

고서류,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자(포괄)확인서
작성대장, 서명권자관리대장 등으로 당시자
원산지 결정기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보관 의무 위반할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될 수 있고,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통성이 부인되어 결국 수입자가 관세를 추징 할 수 있다.

또한, 수출자가 원산지 검증을 받는 경우
는 해당 수출물품을 구성하는 일부 한국산
재료에 대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행한
역사도 중요한 검증대상 업체가 된다. 동사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갖추어 최종 제품
한국산으로 판정된 물품이라면 해당 제조
자는 수령한 협력사도 중요한 검증대상 업
체가 되므로 이에 관련된 입증서류의 구비는
상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한다.❸

사후검증 따라잡기-⑦섬유 및 의류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 검증 I

섬유·의류가 미국 수입관세의 40% 이상... 통관 단계부터 자료 요청해



1. 미국측의 검증 동향

미국 관세청의 섬유와 의류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는 2011년 말 기준으로 전체 징수실적의 40% 이상에 해당할 정도로 섬유산업은 매우 민감하게 관리되고 있다. 또한 매년 원산지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원산지 위험국 및 해당 국가의 몇몇 업체를 선정하여 해외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NAFTA 협정 활용 물품을 위주로 검증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다른 FTA, 특히 한·미 FTA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검증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어 미국에 수입되는 섬유류에 대해서도 통관 시 미국 세관이 수입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특혜가 배제되는 대다수의 경우는 미국 세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때에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지 관련 미국 세관 지침을 통해 알아보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한다.

2. 섬유와 의류의 원산지 확인 및
검증관련 미국 세관 지침

미 세관의 섬유 및 의류제품 관련 FTA 특혜 세율 신청을 위한 추가 서류 규정(TBT-07-019, TBT-11-004)에 의해 FTA 특혜대상인 섬유와 의류제품의 미국 수입통관 시, 수입자

는 해당 제품이 특혜원산지기준을 충족했음을 충분히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섬유와 의류의 원산지 검증 시 미국 관세청은 수입자에게 아래와 같은 자료를 요구하게 되며 이는 수출자(또는 생산자)에게 전달되어 실제적인 준비는 우리나라의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진행하게 된다. 관련 서류 규정(TBT-07-019)은 오른쪽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다.

3. TBT-07-019의 주요 내용

위의 세관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미국 섬유 및 의류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인지해 두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직접적인 당사자 정보
-진술서(Affidavit)는 원사 또는 직물의 생산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1-A)

- 실질적 생산공장의 주소
- 진술서에는 반드시 제품 생산지의 주소 기재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직물 생산자가 직물에 투입된 원사에 대한 제조확인을 명확히 하지 못할 경우 역내산 원사라 하더라도 제조확인이 거부될 수 있으며, 원사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원사의 제조자로부터 확인되어야 함(1-B)

-원사 또는 직물제조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컨버터(converter)나 염색가공업자의 제조확인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1-C)

(2) 제품의 상세정보

-섬유의 조성, 사의 규격, 직물의 종류와 송장(invoice) 또는 구매 번호 등의 기입을 통해 제품이 해당 거래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조자가 원사 또는 원단을 수입한 경우 등 재료에 대한 송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그 재료가 미국산인 경우 미국으로부터 생산국으로 선적 및 운송되었음을 증명 가능한 선하증권 등을 제출해야 한다.

(3) 원산지 기준상 역내산(미국 또는 한국) 재료가 포함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미국산 원사·직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은 원산지증명서, 송장(invoice), 화물 인수증 등이 요구되며 역내에서 생산된 원사·직물·편물 등의 경우, 스타일 번호, 직물의 형태나 구조 및 기타 방법을 통하여 원재료와 최종 제품 간 상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문서, 송장(invoice), 화물 인수증 등
-운송 및 수출기록 (선하증권 등)
-투입재료의 최종 생산지로의 이동 및 기타 역내 이동을 증명하는 서류

수신: Directors, Field Operations Office of Field Operations

발신: Executive Director, Trade Policy and Programs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

제목: 섬유 및 의류제품의 제정 무역프로그램 적용과 FTA 검증에 대한 TBT-07-019

Background

관세청(CBP)은 FTA 집행 및 미국으로 수입되는 섬유 및 의류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업무를 맡고 있다. 관세청의 요청에 따라 섬유 및 의류 제품에 특혜관세를 청구하는 수입자는 제품이 FTA 또는 무역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원산지 규정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규정이 원사(yarn) 또는 직물(fabric)의 원산지가 미국산 또는 규정된 국가(지역)임을 요하거나, 미국산 편물인지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달라진다. 관세청의 요구에 따라 원재료의 원산지 출처를 증빙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원산지임에 대한 증빙을 위해 원사 또는 직물의 형성에 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affidavit)가 필요함.
 - (A) 진술서는 해당 원사 또는 직물을 생산한 공장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야 한다.
 - 실제 생산시설의 주소
 - 해당 주소지의 직원이 진술서를 작성
 - 진술서 상에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명시되어야 함.
 - (B) 해당 원사(yarn)가 미국에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진술서는, 원사를 생산하지 않은 직물 생산자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원사 생산자가 반드시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C) 원사 또는 직물의 실질적인 생산의 책임을 지지 않는 컨버터나 염색업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2. 진술서는 섬유 구성률질(content), 번수(yarn count), 섬유 타입 등의 설명과 송장(invoice)을 또는 주문번호 등의 식별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수입자가 원사 또는 직물을 구매하였을 경우, 해당 재료에 대한 송장(invoice)을 제공하여야 한다.
 - (B) 만약 직물이 미국산이라면 수입자는 미국으로부터 해당 국가로의 운송을 보여주는 선하증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3. 포괄증명(Blanket)되는 원산지는 제품 설명을 포함해야 하며, 직물 설명서(Fabric description)의 경우 포괄증명의 참조번호(reference) 또는 계약번호가 포괄기간 내의 주문과 달라서는 안 된다.

미국산 원사 및 직물에 적용되는 협정 및 그룹에 대한 청구의 증빙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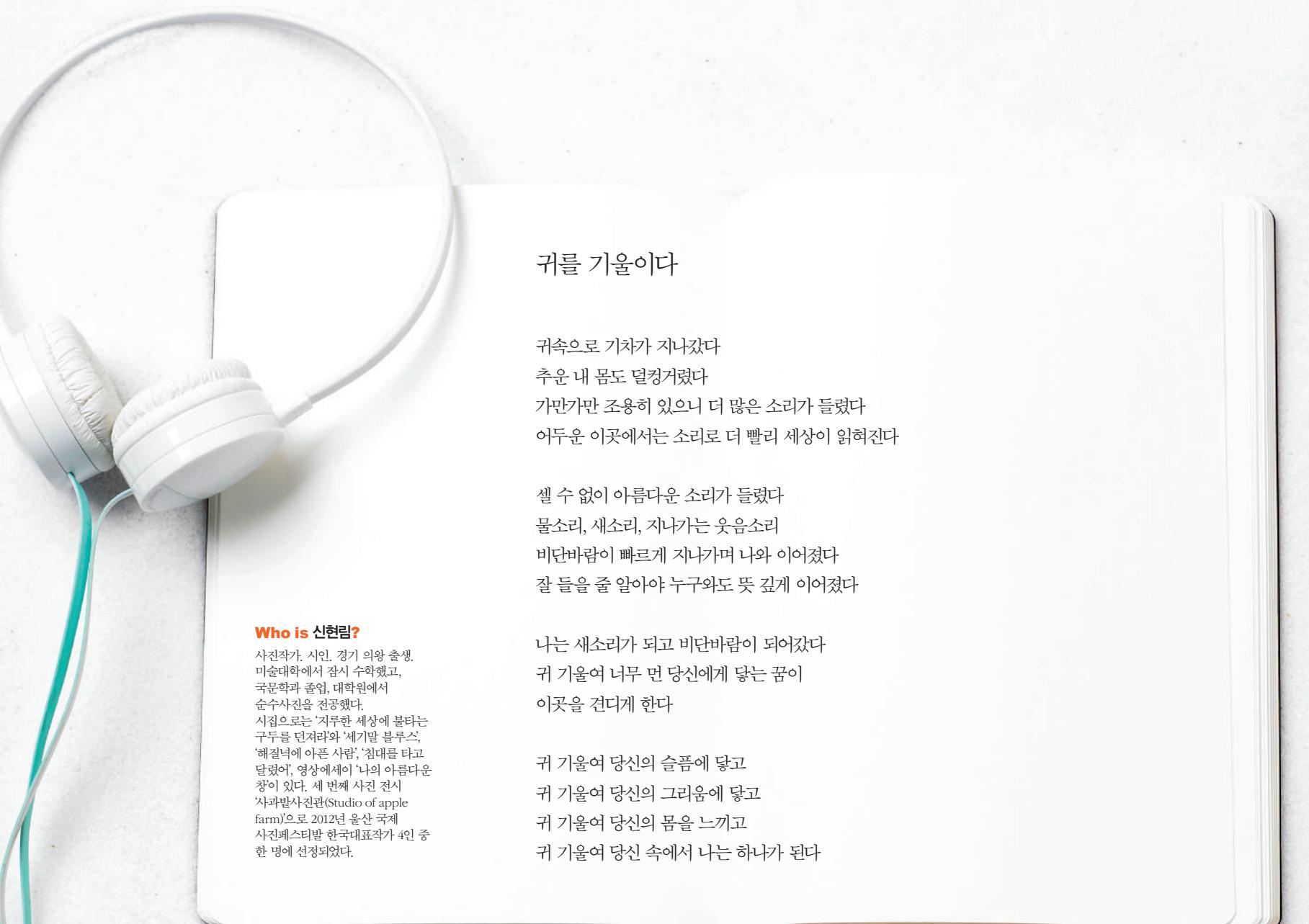
1. 해당 수입제품이 미국에서 생산된 원사 또는 직물이거나 미국에서 재단되거나 모양을 갖추도록 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자료로써, 예를 들면 원산지증명서, 구매주문, 송장(invoice), 화물인수증 및 필요에 따라 실제 생산자가 제공하는 원사, 직물 또는 형틀(panel formation) 자료
2. 운송 및 선하증권 등의 수출 기록
3. 재료의 최종 제품 국가로의 이동을 보여주는 입고(entry)서류

지역별 원사 및 직물에 적용되는 협정 및 그룹에 대한 청구의 증빙서류

1. 지역에서 생산된 원사, 직물 또는 재단되거나 모양을 갖춘 부속품이 조달돼 최종 수입제품에 사용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기록으로써, 예를 들면 구매 주문, 송장(invoice), 화물인수증 등. 이들 서류는 스타일 넘버(style number), 천 종류 및 구성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해당 재료 또는 부속품이 완제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2. 해당 지역산 원사 또는 직물의 최종 제품 생산지역으로의 운송 및 선하증권 등의 수출기록.
3. 최종 제품 생산 지역에서 투입된 재료의 이동을 보여주는 입고(entry)서류
4. 최종 제품 생산 지역에서 재료 이동, 배송 및 인도(delivery)를 보여주는 서류

Action

FTA 또는 제정된 무역 프로그램에 따라 섬유 및 의류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신청할 때, CBP의 요청에 따라 수입자는 위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해당 제품이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보여주어야 하며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적용은 부인될 것이며 이전에 적용된 건 역시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을 수 있다.



귀 기울여 듣다

간간이 느닷없이 내게 자신의 가슴을 털어오는 이들이 있다. 나도 누군가에게 가슴을 털어놓고 싶을 때 잘 들어주면 참 기분이 좋다. 막상 내 몸이 아프고, 힘들 땐 어느 누구에게도 전화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열심히 들으려 한다. 물론 좋은 친구와 선후배들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손이 필요하면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상대방의 아픔은 차분히 가라앉고 다시 사는 힘을 얻는다. 언젠가 본 마음에 담아둘 만한 대목을 펼쳐본다. 폴 틸리히(Paul Tillich, 1886~1965, 독일 출신의 대 신학자)의 말이다.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며,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임을 폴 틸리히는 강조한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건 귀와 가슴으로 듣는 기술이다.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이야기에 배인 기분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의 경험을 받아들이며 온몸으로 그 경험에 귀를 기울인다. 얼마 전에 내게 온 전화의 내용이 떠올랐다. 오래 전 팬으로 만나, 인생의 친구가 되어 1년에 몇 번 통화하는 한 여성의 전화였다. 세련된 듯하면서 푸근한 그녀의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울려왔다.

“오늘 전 너무 쓸쓸했답니다. 이렇게 몹시 외로울 때 내 재롱을 받아줄 이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한두 명도 안 되는 것 같더군요. 어느 날은 일만 만들고 나 자신한테 떠맡기고 가는 남편 옆에서 더없이 외롭습니다. 형제자매들도 남같이 느껴지고, 그리 친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제가 힘들 때 손을 잡아주더이다. 어디선가 읽은 글엔 속 깊은 얘길 나눈 친구 열 명은 있어야 한다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 슬펐습니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속 얘길 나눌 친구 열 명은 많습니다.”

“그런가요?”

“두셋만 되도 마음 부자이지요.”

나는 그녀를 위로하려고 한 얘기였지만, 나도 마찬가지다. 속얘기 나눌 친구 두셋만 되도 참으로 든든한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친구들은 줄어든다는 어른들 말이 있으니 열 명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하지만 그 열 명을 관리하고 좋은 교제로 나아가는 게 쉽지 않다. 많은 이들이 너무나 바빠 남 얘기에 귀 기울일 틈도 없다. 애정이 없는 건지, 사려 깊은 만치 정신적 여유가 없는 건지, 점점 남의 얘기에 귀담아 듣는 사람들은 아주 귀한 손님 같은 사람이라, 잘 해야 한다. 어떤 날은 분명 귀한 친구가 있음에 깊이 감사해야 한다. 그 감사함으로 관계는 더 돈독해진다.

내 속을 터놓고 싶어도 통화가 안 되거나 갑자기 아무도 생각이 안날 때가 있다. 그러면 나 자신이 인간 농사를 잘못한 것인지 깊은 회의와 반성을 해볼 때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눅 들지는 않으려 한다. 주변을 보면 많이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이 외롭고 힘든 것이 속 터놓고 말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임을 느낀다. 그래서 자살자들이 많은 것이다. 진정 남의 말에 귀 기울여주면 절박한 문제나 걱정거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어쩌면 조언을 주는 일보다, 자신을 안심시키고 경험을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래야만 진정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다음 시집에 실릴 내 시중에 최근에 쓴 '귀를 기울이다'가 있다.

내 시에도 썼지만 듣는다는 건 누군가와 뜻 깊게 이어지는 일이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다. 특별한 시기에, 나를 위해 있어줄 친구들에게 자연히 끌릴 것이며, 그럴 수 없는 사람은 멀어질 것이다. 그냥 흘려보내기 쉬운 우리 삶의 사소하지만 커다란 배려고 사랑하는 일이다. 나 또한 누가 내 얘길 귀담아 들을 때 상대방에게서 아주 따뜻한 인정이 느껴진다. 음악을 귀 기울여 듣다 보면 그 음악과 깊이 이어져가는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말하는 상대는 그 배 이상의 기쁨과 고마움을 갖는다. 그리하여 서로 깊은 유대감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일. 이것이 깊어질 사랑과 우정의 시작이므로.❷

김성녀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우리 소리는 마약 같은 매력 있어... 직접 와서 봐야 느낄 수 있죠



지난 7월 1일 7시 50분 서울 남산에 위치한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은 북적댔다. 8시에 시작하는 국립창극단의 공연 '변강쇠 점 찍고 옹녀(이하 옹녀)'를 보기 위한 관객들이다. 무더운 날씨, 불편한 교통, 평일(화요일)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극장은 만석이었다. 대중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창극(唱劇)'이 최근 변화를 시도하면서 관객의 호응을 얻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런 창극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는 일반인들에게도 연기자로 잘 알려져 있는 김성녀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이다.

사실 김성녀 감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터라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이란 의문문이 떠올랐다. 나아가 좀 있는 분들은 드라마 '지금 평양에선'의 최은희 역, '서울뚝배기'의 오지명 씨의 부인 역 등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엔 브라운관(이젠 LCD패널이라고 해야 할 듯하다)에서 보기가 힘들었다. 말 못할 사연으로 인해 공백기를 가졌던 것일까? 실은 그간에도 꾸준히 연기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다만 TV에 자주 나오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국립창극단을 책임지는 자리에 온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연출가 아버지, 소리꾼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5살 때 연기 시작

"사실은 제 연기의 시작이 창극이었습니다." 김성녀 감독은 연출가인 아버지(고 김향 감독)와 국극 배우인 어머니(고 박옥진 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첫 연기는 5살 때 어머니의 아역으로 무대에 오른 것이다. 그는 이를 "숙

명처럼 연기의 길을 걸었다"고 했는데, 아버지로부터 연기의 재능을, 어머니로부터 국악의 재능을 이어받은 데다 여렸을 때부터 국악을 접할 기회가 많아 마당놀이와 창극은 그의 평생의 업이 되었다.

1970년대 중반 극단 '민예'에서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한 뒤, 국립창극단과 국립극단 단원을 거친 지라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부임도 그리 낯설지 않았다. 1981년 마당놀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생긴 이후 30년 넘게 '마당놀이'의 아이콘으로 전통의 소리와 연기를 통해 관객들과 호흡해왔다.

무대연기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무대만을 고집하지 않고 TV, 라디오, 영화 등 다양한 장르를 경험한 것은 지금의 창극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당시 이런 '외도'를 한 것은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였지만, 알바라고 해서 경험 삼아 설령설령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했고, 결국 인정을 받았다. 꼭 상을 받아야 인정

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간 받은 백상예술대상 연기상(1986년 '돈키호테'),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1996년 '7인의 신부들'), 동아연극상(2005년 모노드라마 '벽 속의 요정', 이하 동일 작품), 올해의 예술상, 2007 한국연극협회 자랑스러운 연극인상, 2010 제20회 이해랑 연극상, 춘사영화제 여우조연상(2000년 '춘향뎐') 등을 보면 그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취임 후 목표는 창극의 저변 확대

다시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1층 관객석은 만석이다. '창극'이라고 해서 노년층만 있을 거란 것은 선입견에 불과했다. 30~40대가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은 소수였다. '19금 연극'이라 아이들이 없는 것을 빼면 어느 뮤지컬 공연과 다르지 않았다.

변강쇠, 옹녀 얘기를 다루니 '19금'이 당연 할 것도 같지만, 실제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야한 '비주얼'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국립



김성녀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은 5살 때부터 창극을 해왔다. 2012년 극단을 맡은 뒤 그는 창극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식의 창극을 시도해 오고 있다. "형식의 파격에도 우리 소리의 마약 같은 매력은 변함이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극장'이란 장소가 풍기는 근엄함에 걸맞지 않게 쏟아지는 육두문자들이 폭소를 자아낸다. 애잔한 결말의 스토리라인은 극의 몰입도를 높였고, 흥겨운 국악 장단이 나올 때는 박수가 절로 나온다. (원작인 '변강쇠전'이 타고난 능력(?)으로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두 남녀의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애잔한 러브 스토리라는 것은 처음 알았다.)

'관객 저변 확대' '창극의 다양화'. 이 두 가지는 김 감독이 2012년 국립창극단을 맡으면서 세웠던 목표다. "국립창극단은 1962년 창단 이후 매니아층만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 이뤄졌습니다. 관객의 저변을 넓히려면 뮤지컬, 연극의 관객들을 모셔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스릴러 창극, 멜로 창극, 19금 창극, 해학 창극 등 젊은 층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시도했습니다. 주위의 우려에도 '이런 것도 창극이 될 수 있다'고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스 비극 '메디아'를 창극으로 표현하는 등 새로운 시도 끝에 국립창극단 역사상 처음으로 '의미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

경극이나 일본 가부키처럼 한국의 창극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거장이 창극을 맡으면 창극이 세계적으로 자연스레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국립창극단은 2011년 세계적 오페라 연출가 아임 프라이어(Achim Freyer)의 '수궁기' 이후 꾸준히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루마니아 출신의 거장 안드레이 서번이 연출하는 '춘향전'이 11월 공연을 앞두고 있다. (7월 6일 막을 내린 '옹녀'를 끝 본 관객은 '춘향전'을 기대해볼 만하다.)

아직 창극을 접하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 김 감독에게 창극을 즐기는 법에 대해 물어 보았다. "뮤지컬처럼 음악극은 음악과 노래가 주는 감동이 큽니다. 우리 판소리는 강력한 소리가 있어 가까운 곳에서 직접 소리를 들으면 마약처럼 빨려들 수밖에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일단 와서 볼 수 있게 하는 미끼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뮤지컬, 연극보다 더 파격적으로 창극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형식은 변하겠지만, 우리 소리의 강력한 매력을 변하지 않습니다."❶



박관원 배다리막걸리 회장 박정희 대통령이 마시던 막걸리… 내년이면 100주년 맞아

막걸리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은 이율배반적이다. 막걸리가 해외에서 인기라는 얘길 들으면 뿐듯해하면서도, 막걸리를 고급화하겠다고 하면 등을 돌린다.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막걸리가 비슷비슷해지면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도 경기도 고양시의 배다리막걸리는 유서 깊은 역사를 상품가치에 담으려 노력하고, 또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배다리막걸리의 가장 큰 자산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일화다. 1966년 박 전 대통령은 김현옥 전 서울시장과 주말마다 고양시의 한 양골프장(현 한양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쳤다. 어느 날 서울로 돌아가던 길에 박 전 대통령이 “막걸리나 마시러 가지”고 해서 찾아간 것이 삼송리의 한 ‘실비옥(당시 간판명)’이었다. 당시 실비옥 사장은 박 전 대통령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교회에서 돌아온 그의 아

내가 뒤늦게 알아보고 놀라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막걸리를 마시던 박 전 대통령은 “이 막걸리가 어디 것인가”고 물었고, 이 일이 있은 후 청와대 직원이 배다리막걸리(당시 능곡양조장)를 찾아와 “각하가 당신네 막걸리가 맛 있다고 하니 매주 갖다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인연으로 배다리막걸리는 1979년 박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자사 골프코스 14홀을 마치고 그늘집(플레이 중 잠시 휴식을

거일인 10월 26일 전날까지도 술이 배달됐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비서실장이 양주 권해도 막걸리만 마시던 박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양주보다도 막걸리를 더 좋아 했다. 뉴코리아CC는 사보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자사 골프코스

취하는 곳)에서 ‘막사이다(막걸리+사이다)’를 마신 일화를 소개한 바 있다. 당시 차지철 경호실장이 “시바스(시바스 리갈 위스키)”를 드시지 촌스럽게 막걸리를 드시냐”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막걸리를 고집했다. 뉴코리아CC에는 지금도 그늘집마다 배다리막걸리를 가져다 놓고 있다.

고양시에 위치한 배다리박물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수역이길 120-24)에는 박 전 대통령과 얹힌 스토리가 재현되어 있다. 특히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한 술통을 특별히 보관하는 창고의 문은 당시에 사용되었던 문짝을 버리지 않고 보존해 재현한 것이다. 당시 그 열쇠를 고양경찰서 정보과가 보관하고 있어, 박 회장도 함부로 그 문을 열 수 없었다. 그러나 한 여름 높은 온도로 인해 술이 끓어올라 다 버리게 된 이후부터 박 회장도 열쇠를 받을 수 있었다.

배다리막걸리가 다시 주목을 받은 것은 1998년 고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소를 물고 병복했을 때다. 정 전 회장은 맞이한 고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박정희 대통령이 마시던 막걸리를 갖다 달라”고 요청하면서 배다리막걸리는 ‘통일주’라는 별칭을 얻게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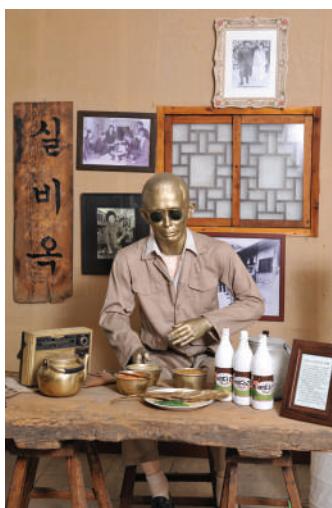
다.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배다리막걸리가 만찬주(5개 막걸리 공동)로 쓰였다.

현대사의 굴곡과 함께한 술도가

배다리막걸리의 역사는 19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회장의 증조부인 박승언 응은 구한말 향반으로 지내다 배다리골(현재 주교동)에 잡화상 겸 양조장인 ‘인근상회’를 냈다. 일제 강점기까지 잘 나가던 술도가는 증조부가 광산업에 손을 대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한국 전쟁 때는 잣더미가 된 공장을 어렵사리 되살려 했다. 그러던 중 박 회장의 부친이 마흔 살 젊은 나이에 맹장염 수술 후 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박 회장은 열 네 살에 양조장을 이어받아야 했다. 다행히 그간 배다리막걸리의 품질이 인정을 받아서인지 양조장은 다시 정상화될 수 있었다.

박 회장은 “막걸리를 하며 굴곡이 많았다”고 얘기한다. 1974년에는 전국에 산재한 막걸리 제조장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강제 통폐합되면서 고양의 5개 막걸리가 하나로 통합됐다. 지금 배다리막걸리는 고양탁주합동제조장에서 ‘고양막걸리’ 등과 함께 생산된다. 그러나 각각의 막걸리의 특징을 살려 따로 생산되므로 배다리막걸리의 고유성은 보존되고 있다.

1990년대 일산 개발을 통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배다리막걸리는 또 한 번의 부흥기를 맞는다. 그러나 2000년 판매지역 제한이 풀리면서 전국의 모든 막걸리가 고양에서 팔리게 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 때 박 회장의 아들인 박상빈 현 배다리막걸리 대표(52)는 건축가의 길을 걷던 중 박 회장 칠순 기념 회고록 초고를 읽으며 유서 깊은 배다리막걸리의 내력에 새삼 감동을 받아 가업을 잊기로 결심하게 된다. 박 대표는 젊은 경영인답게 2004년 배다리박물관을 설립하며 배다리막걸리의 역사를 상품화하는 등 현대적 마케팅을 도입했다. 그의 고조부 때부터 이어져 오던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고양시에서 골프를 치고 돌아가던 중 한 주점에서 막걸리를 마신 뒤 배다리막걸리의 매니아가 됐다. 사진은 배다리박물관에 재현된 당시 모습.

고급술인 ‘주교주(청주)’, ‘아사달(증류소주)’을 복원해 출시했고, 2009년 국내산 최고급 햅쌀로 만든 ‘누보 막걸리’를 개발해 신세계백화점에서 ‘보줄레 누보’ 와인의 판매량을 앞서기도 했다.

몇 년 전 불었던 막걸리 열풍이 잠잠해지면서 현재 국내 막걸리 판매는 전성기에 비해 30%가량 줄어든 상태다. 배다리막걸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브랜드를 알리려는 노력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일산 한류월드로에 체험판매장인 ‘궁탁’을 오픈해 배다리막걸리의 역사와 품질을 알리는 중이다.

내년이면 배다리막걸리는 설립 100주년을 맞게 된다. 시장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100년 동안 이어진 내력은 배다리막걸리뿐만 아니라 산업적 가치로 보더라도 버리기 아까운 자산이다. 수백 년 된 프랑스 와인은 그 역사 자체가 상품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빈 대표는 “100주년을 마부위침(磨斧爲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의 신념으로 준비해 막걸리가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



박 전 대통령에게 배달하기 위한 술을 보관했던 창고의 실제 사용됐던 문짝을 가져와 당시의 모양을 복원했다.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하반기 통상정책 현안 점검해



고, FTA에 대한 협상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다만 타결 시점을 예단하지 않고, 충분한 이익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실리적 협상을 추구할 계획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경우, 예비 양자협의 결과 및 국내 심층 영향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추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 인도네시아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한·베트남 FTA, 한·인도네시아 CEPA의 협상 진전을 모색할 계획이다.

② WTO 협상 대응현황 및 추진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일 한진현 제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세종청사와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20여 개 부처가 참석했다. 통상추진위원회는 통상현안에 대한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고 조화로운 통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새롭게 출범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①2014년 상반기 FTA 협상 추진실적 및 계획, ②WTO 협상 대응계획, ③주요국 무역장벽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① 2014년 상반기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추진실적 및 계획

올 상반기에는 캐나다와의 FTA를 타결하고, 한·호주 FTA 가서명·정식서명, 한·캐나다 FTA 가서명 완료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상품 양허와 협정문에 대한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한·뉴질랜드 FTA와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의 경우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만을 남긴 상황이다.

하반기에는 우선 타결된 FTA에 대한 국회 비준절차를 진행하

③ 주요국 무역장벽 대응방안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의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우리 업계에 심각한 시장접근 제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민관 합동의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국무역협회, KOTRA, 업종별 협회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사례별로 대응해오고 있다.

'비관세장벽 협의회 제3차 회의' 개최 업계와 정부, 비관세장벽 대응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6일 민관합동의 '비관세장벽 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조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민관 합동의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 이래 무역협회, KOTRA, 업종별 협회(18개)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법정부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개별 비관세조치 사례에 대해 ①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②무역규범 합치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민간의 통상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 중이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비관세장벽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한 사례를 선별하는 작업을 했다. 그간 업종별 협회 및 KOTRA 무역관은 비관세조치가 업계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 자문단은 무역규범 위반 여부를 수차례 회의를 통해 검토했다. 아울러 선별한 사례에 대해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정부조달, 수출통제 등 조치 유형별로 분류해 구체적인 애로사항, 효율적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또한 비관세조치에 대한 정보입수에서 해소를 위한 최종단계까지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삼계탕 사례 해결에 10년 이상 걸린 것과 같이 비관세조치

는 각국의 법, 제도와 관계된 경우가 많아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외국의 비관세장벽이 실제 우리 업계에 심각한 시장접근 제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업계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부처간 해결을 위해 협업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1차 보고서' 회람 G20 국가의 무역 제한 조치 소폭 감소

WTO, OECD, UNCTAD(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사무국은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1차 보고서(대상기간: 2013년 11월 중순~2014년 5월 중순)'를 회람했다. 이 보고서는 G20 정상간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과 원상회복(roll-back)'에 대한 G20 각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연 2회 발간되고 있다. G20 국가는 2008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을 최초로 합의하고, 2012년 6월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에서 2014년 말까지 연장기로 합의한 이래 2013년 9월 상페테스부르그 정상회의에서 2016년 말까지 재차 연장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도입된 무역 자유화 혹은 원활화 관련 조치가 증가한 것이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새롭게 도입된 무역원활화조치(관세 감축, 보호주의조치 철폐 등)는 93건으로 직전 조사기간의 57건에 비해 크게 증가(전체 무역관련 조치 대비 비중은 33%에서 4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대상기

간 동안 신규 도입된 무역 원활화 조치는 전 세계 상품 수입의 0.4%, G20 회원국 수입의 0.6%를 차지).

지난 6개월 동안 G20 회원국이 취한 신규 무역제한조치(보호무역 조치)는 총 112건으로, 직전 대상기간의 116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이 무역제한조치는 전 세계 상품 수입의 0.2%, G20 회원국 수입의 0.3%를 차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무역제한 조치는 반덤핑 조치(전체 무역제한조치의 58%)이며, 수입 제한조치가 25건, 수출 제한조치가 17건이었다.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7차 협상 개최 2014년 하반기 실질적 타결 목표로 추진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7차 협상이 6월 30일~7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명준 서비스투자과장과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터키측은 경제부 야피치(Yapıcı) EU국장을 수석대표로 사파리(Safali) 조약과장(서비스분과장) 및 악피나르(Akpınar) 투자과장(투자분과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상은 제3차 협상(2011년 3월) 후 중단되었다가 2013년 8월 재개돼 2014년 하반기 중 실질적 타결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터키 최초의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 체결로, 한·터키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TBT협정

TBT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낮추고 자유무역 활성화를 위해 각국의 표준·기술규정을 국제표준에 맞추도록 의무화한 협정이다. WTO 체제의 협정으로, WTO의 전신인 GATT(관세 및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 1947년 발족) 체제 때부터 시행됐다. TBT란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뜻하며, TBT협정은 기본적으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낮춰 자유무역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이란, 무역 상대국들이 서로 상이한 표준(Standard),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절차(Inspection System) 등을 적용해 상품·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것이다. 특정 국가가 각종 표준·기술규정 및 인증절차 등을 까다롭게 운영할 경우 해당 국가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표준·기술규정 요건에 맞도록 새로운 생산설비를 구비하거나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비해야 되므로 이는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각국의 상이한 표준·기술규정, 인증절차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TBT협정이 체결됐다. 주로 표준(규격) 및 기술규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표준협정이라고도 부른다. 기술규정 및 표준, 인증제도, 공식질의처 운영, 개도국 우대, 국제표준의 채택 강화, 분쟁 해결에 관련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자의 소리 〈함께하는 FTA〉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농업분야의 피해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기사를 읽고 유제품, 인삼 등 우리 전략제품의 브랜드를 키운다면 우리의 농수산 식품이 중국 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FTA는 우리나라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는 열쇠라 봅니다.

조한석(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FTA는 손이 가기 힘든 내용인데, 실제로 '함께하는 FTA'를 읽어보니 FTA에 대한 쉬운 설명과 사례가 쓰쳐 들어옵니다. 외국에서는 불고기, 갈비, 비빔밥이 유명하는데 비나나맛 우유가 중국, 일본에서 빅히트를 하고 있다니 반갑네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외국에서 인기 있는 제

품을 더 소개해 주세요.

강병득(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

FTA 체결로 영향을 받는 산업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학생들 지도에 도움이 되었고 더 많은 국가와 FTA를 맺어 우리경제가 더 발돋움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바

나나맛 우유의 세계진출 기사가 유익했는데, 맛으로 세계가 교감하고 있다는 점에

윤혜경(전남 광양시 중동)

'함께하는 FTA'를 볼 때마다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활용률에

비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네요. 종합적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점차 개선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강미아(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함께하는 FTA'를 접한 지 벌써 8개월에 접어들고 있는데 'FTA Study' 섹션을 통해 자유무역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세계의 FTA' 기사로 실린 인도의 FTA

추진동향을 읽고 동아시아 시장을 교두보로 하여 FTA를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과 각 나라마다 다른 FTA 시장 생존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석원(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2길)



2014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업의 FTA를 활용한 수출증대 및 신시장 개척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응모주제

- **기업부문** FTA를 활용한 개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성공, 수출확대, 신시장 개척 등의 성공사례
– FTA 상대국의 관세율 인하를 활용한 수출, 원산지 충족을 위한 부품·소재의 수입선 및 국내생산 전환 수출 등
- **학생부문** FTA를 활용한 기업의 가상 성공사례 또는 기업이 활용 가능한 FTA 활용 정책 아이디어

시상내용

| 구분 | 시상구분 | 시상내용 | 상금(만원) |
|------|-----------|-------------------|--------|
| 기업부문 | 대상(1개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 300 |
| | 최우수상(4개사) | 관세청장, 중기청장상 | 각200 |
| | 우수상(10개사) | 무역협회장상, 중소기업중앙회장상 | 각100 |
| 학생부문 | 대상(1개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 150 |
| | 최우수상(1개팀) | 무역협회장상 | 100 |

응모자격

- **기업부문**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으로서 FTA 활용을 통한 수출증대 및 신시장 개척 등의 성공사례 보유 기업
- **학생부문**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2014년 10월 16일 기준)
– 1팀 3인 이내

공모일정(2014년)

- 접수일정 : 7월 7일(월) ~ 9월 10일(수) 18:00 마감
- 심사 : 9월 15일(월) ~ 9월 19(금)
- 결과통보 : 9월 25일(목) 개별통보
* 본선진출작 17개팀은 경진대회 발표를 위한 준비 필요
- 경진대회 : 10월 16일(목) 14:00 ~ 18:00
무역센터 대회의실(51층)

접수방법 및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촉진과
김현진 사무관 (044)203-4155, hunjin@koreatrade.go.kr

한국무역협회 FTA 활용전략실
김꽃별 대리 (02)6000-4684/4687, kfstar@kita.net

홈페이지 www.fta.go.kr 또는 www.fta1380.or.kr 참조(제출양식有)

FTA 활용과 인증 표준 업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380

국내외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380,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FTA 콜센터 1380과 인증 표준 콜센터 1381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FTA 콜센터 1380

FTA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상담 등
FTA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350여 개의 해외인증과 300여 개의 국내 인증 및
4만 3천여 개의 표준 정보를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정보로 가공해 제공